

The-K

The logo for 'The-K' features the text 'The-K' in a bold, red, sans-serif font. Below the letter 'K' is a simple red smiley face consisting of two curved lines.

Monthly Magazine
October 2017
Vol. 02

CONTENTS

2017 OCTOBER VOL.02



SPECIAL THEME 변화, Change

4
여는 글
꿈을 향한 모험, 변화

6
Essay
선생님의 조건
안하현 안산 이호중 강사

8
Interview 1
4전 5기 끝에 찾은 교사의 길
윤정현 전남 정남진산업고 교사

12
Interview 2
투명 유리문 속 교장 선생님
이흥신 김포 사우초 교장

16

아름다운 동행
'천년의 시간을 함께 걷다' 엄마와 딸의 경주 산책 이야기
이지현 울산 호계고 교사

22

먼 나라 교육 편지
다른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 - 모로코 와잔
정혜원 울산 서부초 교사

26

행복 만들기
세브란스 암병원 직장인 밴드 '암자바'

30

마을 연구소
가면의 인격, 페르소나를 넘어서

32

하루 발자취
내일로 가는 옛길, 우리 고전을 만나다
김기완 고전번역교육원 전주분원 행정원

36

네오필리아
걷고 싶은 계절, 걷고 싶은 이색 거리 5곳

38

브랜뉴 여행
호주 속 또 다른 호주를 만나다 '남호주'

44

추천 핫플레이스
건국대학교 주변 핫플레이스



The-K

VOL.02

46
바르게 먹고 잘 사는 법
 노년층부터 젊은층까지,
 우리 모두에게 켜진 '녹내장' 경고등

48
재테크 팩토리
 신혼부부의 재테크 전략

51
공제회원의 한마디
 요즘 뭐하시나요?

52
The-K Focus
 가을밤을 수놓은 고품격 음악의 세계로

54
The-K Family
 '자연이 주는 선물' 지리산 가을 단풍맞이
 The-K지리산가족호텔

58
The-K News
 한국교직원공제회 및 출자회사 소식

61
독자 이벤트
 10월 즉석당첨이벤트

62
The-K Info
 한국교직원공제회 주요 제도 및 서비스 안내

웹진



안드로이드 앱



아이폰 앱



<The-K 매거진>은 웹진과 모바일앱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www.thekmagazine.co.kr

발행인	문용린
발행처	한국교직원공제회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50(여의도동 60) www.ktcu.or.kr
발행일	2017년 10월 1일
편집	
기자	정수희 jsh@swadcom.co.kr
객원 기자	이경희 허성환 강나은
교열	박혜경
디자인	
아트 디렉터	서희지 seo@swadcom.co.kr
디자이너	김진이 kj2@swadcom.co.kr
사진	
포토그래퍼	한상무 김홍진 황원 장태규
사진 자문	유병용 디지털사진연구소 사티
법률 자문	김병철(문장종합법률사무소)
애플리케이션 제작	(주)아이원기술
제작 인쇄	(주)성우애드컴 02-890-0900

<The-K 매거진>은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The-K 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The-K 매거진>의 공식적인 견해
 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The-K 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 허락 없이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콜센터 1577-3400
 보험콜센터 1577-3993

27년 전 독일의 락밴드 스킨피온스는 <변화의 바람(Wind of Change)>을 외쳤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시간을 타고서 불어오고 있어요. 마음의 평화를 위해 자유의 종을 울리게 해줄 그런 폭풍처럼 말이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사람들은 누구나 변화(變化)에 목말라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변화를 꿈꿉니다. 삶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기만을 바라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보다 건강하기를, 보다 부유하기를, 보다 친구가 많고 사랑 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화라는 단어에는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아름다운 꿈이기도 하지만 막연한 두려움에 머뭇거리게 되는 무엇이기도 하지요. 일련의 변화가 꼭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변화를 위한 첫 번째 필수조건, 모험 앞에 머뭇거립니다.

하지만 꿈을 꾸는 자, 이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만 허락된 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지금 당장 주변의 아주 작은 것부터 소소한 변화를 주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한 교장 선생님은 교장실의 문을 유리로 만들어 아이들과 소통의 길을 열어갔습니다. 불투명하고 단단한 철제 문이 투명하고 반짝이는 유리로 바뀌면서 주변의 세상도 변화했습니다. 무서운 교장 선생님과 어린 아이들 사이에는 투명하고 반짝이는 교감(交感)의 장이 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꿈을 꾸는 자는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변화를 위해 꿈을 꾸세요. 그리고 아주 작은 것부터 바뀌나가 보세요. 머지 않은 곳에서 긍정적인 변화(變化)가 당신을 향해 미소 짓고 있을 겁니다.

꿈을 향한
모험,

편지



선생님의 조건

집 앞 슈퍼까지 1분, 길 건너 병원은 3분, 가까운 공원까지는 10분. 지난해 여름, 나의 생활반경은 집에서 도보 10분을 넘기지 않았다. 여행 잡지사의 기자로 일하며 전국을 돌아다니던 때도 있었다. 새벽녘 서울에서 출발해 여러 도시를 찍고 밤늦게 귀가하기를 여러 번, 무언가를 타고 움직이는 일이 일상이었다. 덜컹거리는 기차에서 아침을 맞거나 울렁대는 배에서 국경선을 넘기도 했다. 화려한 과거와 달리 여름의 행적은 매우 초라했다. 허리디스크가 도지며 몸이 자유롭지 못한 탓이다. 매일 돌아다니던 사람에게 모든 순간의 움직임이 고통으로 다가왔다. 오롯이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곳만 다니며 여름을 보냈다. 치료를 위해 회사를 그만두며 삶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더는 새벽에 퇴근하지 않고, 내 손으로 만든 음식으로 끼니를 챙기게 된 것. 야간의 주간화, 배달음식의 생활화에 익숙한 나는 이제야 사람답게 산다고 생각했다. 가장 큰 변화는 교단에 서게 된 일이다. 8월부터 자유학기제 글쓰기 강사로 중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자유학기제 취재를 했던 내가 그 현장에 서게 된다니 인생이란 정말 알 수 없는 일이다. 학교 가는 길은 여전히 낯설고 설렌다.

선생님의 모습은 이렇게 기억된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의 키팅 선생님처럼 아이들을 바른길로 이끌거나 소설 <마지막 수업>의 아멜 선생님처럼 직업에 사명감이 투철한 모습이다. 편견이겠지만 어쩔 수 없다. 학창시절 동안 좋은 선생님을 많이 만났고 그들은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선생님의 조건을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다. 수행평가로 가장 좋아하는 시를 외우게 하는 낭만적인 선생님도 있었고, 내가 읽던 책을 기억해 넌지시 토론대화를 추천하는 섬세한 이도 있었다. 우리들의 껌에 모른 척 넘어가 첫사랑 이야기를 해주던 유쾌한 선생님도 기억난다. 첫 수업시간에 칠판에 써 내려간 글을 아직도 좋아한다. ‘느끼지 않는 삶은 살아갈 가치가 없다’는 말을 곱씹으며 글을 쓰고 싶다고 생각했다. 관심 어린 눈길을 준 선생님과 문학적 영감을 채워준 도서관 덕분에 나는 글을 쓰는 사람이 되었다.

자유학기제는 교과 외의 다양한 수업을 들으며 진로를 탐색하는 취지다. 다시 오지 않을 순간이기에 아이들에게 더욱 소중한 시간이다. 첫 수업을 들어가며 전전긍긍했다. 취재는 익숙한데 학교 수업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았다. 팀 코칭 선생님에게 학습 자료를 다 보여주고 시간이 남으면 어떡하냐는 질문을 했다.



능숙한 선생님은 '그럼 상황에 맞춰 이야기를 해주면 되죠'라고 말했다. 우문현답이다. 첫 날 대본을 만들어 달달 외운 걸 학생들은 알까? 말은 안 했지만 전날 밤을 설쳤다. 혹시나 아이들의 소중한 시간에 망치지 않으려고. 기자로 일하며 현장에서 일어난 에피소드와 좋은 문학작품을 밀천 삼아 글쓰기를 가르친다. 학습지와 PPT 자료 등 든든한 준비를 했는데도 매번 수업이 다가오면 잘 전달이 될지 고민스럽다. 글쓰기가 좋아 반에 들어온 아이도 있지만 가위바위보에 져서 들어온 학생도 있다. 다양한 어휘로 글을 써서 놀라게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하나하나 옆에 붙어 문제를 설명해줘야 하는 이도 있다. 한 배에 탄 다양한 아이들을 다 같이 이끌어가는 건 새내기 선생님에게 보통 일이 아니다. 그때마다 코칭 선생님의 조언이 든든하다. 교실에서는 더욱 설 틈이 없다. 좋은 글을 자료로 보여주고, 설명이 끝나면 아이들에게 직접 글을 써보게 한다. 아이들은 글쓰기 하나에도 끄꿍 머리를 싸맨다. '괜찮아, 이거 선생님이 만든 건데 정답이 없게 만들었다'고 늘 말한다. 정답은 없다. 인생의 선택마다 늘 듣고 싶은 말이기도 하다. 글을 다 쓸 때쯤 교실을 돌며 서른 명의 글을 살펴본다. 나는 이 순간을 가장 좋아한다. 이쪽저쪽에서 '선생님'을 외치며 봐주라고 말한다. 이럴 땐 몸이 여러 개였으면 좋겠다.

안하현

어릴 적부터 책을 좋아해 자연스레 국어국문학과에 진학했다. 연극 동아리, 네덜란드로 교환학생, 20여 개국 배낭여행 등 대학 생활을 후회 없이 보냈다. 여행 매거진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다. 2017년 8월부터 안산 이호중학교의 글쓰기 강사로 아이들과 만나고 있다.



첫 수업시간에 칠판에 써 내려간 글을 아직도 좋아한다. '느끼지 않는 삶은 살아갈 가치가 없다'는 말을 곱씹으며 글을 쓰고 싶다고 생각했다. 관심 어린 눈길을 준 선생님과 문학적 영감을 채워준 도서관 덕분에 나는 글을 쓰는 사람이 되었다.

요즘에는 마음이 동하는 글을 읽거나 영상을 볼 때마다 수업에 연결 짓는다. 이 소

설을 보여주면 아이들에게 생생한 묘사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지? 학생들이 지루하지 않게 영상을 예시로 보여줄까? 좋은 시 한 구절이라도 더 알려주고 싶은 게 선생님 마음이다. 매일 이런 생각을 하는 걸 보면 나도 영락없는 선생님이다.

올해는 잠시 펜을 놓고 분필을 잡으려 한다. 기자님 대신 선생님 소리를 듣는 일에도 익숙해졌다. 어느새 수업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넘어간다. 그 날의 날씨, 수업 자료, 아이들의 반응에 따라 수업은 너무나도 달라진다. 하루 아래 같은 수업은 없다. 앞 반에서는 빵빵 터지던 개그가 뒷반에서는 피식 웃음밖에 새어나오지 않는다. 아이들이 수업 중에 어떤 글을 써낼지 결과도 알 수 없다. 전국을 떠돌며 글을 쓰던 내가 매주 교실에 붙어 있을 줄 누가 알았을까? 이토록 색다른 변화에 나는 몸을 맡기기로 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6~7교시에 수업이 시작된다.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나려나. 선생님이 되길 아니 살아보길 잘했어.

4 전 5 기 끝 에 찾 은 교 사 의 길

윤
정
현
전
남
정
남
진
산
업
고
교
사

4번의 직장 생활을 거쳐 5번 만에 찾은 교사의 길. 윤정현 교사는 여러 직장을 옮겨 다니다 우연한 기회를 통해 교사의 길로 들어섰다. 32세의 적지 않은 나이에 시작, 지금은 교사라는 직업을 천직으로 여기며 28년째 몸담고 있다. 다양한 직종을 통해 얻은 다양한 경험을 밑거름 삼아 자신만의 교육철학을 완성해 가고 있는 그를 만나보았다.

가르치며 얻는 보람을 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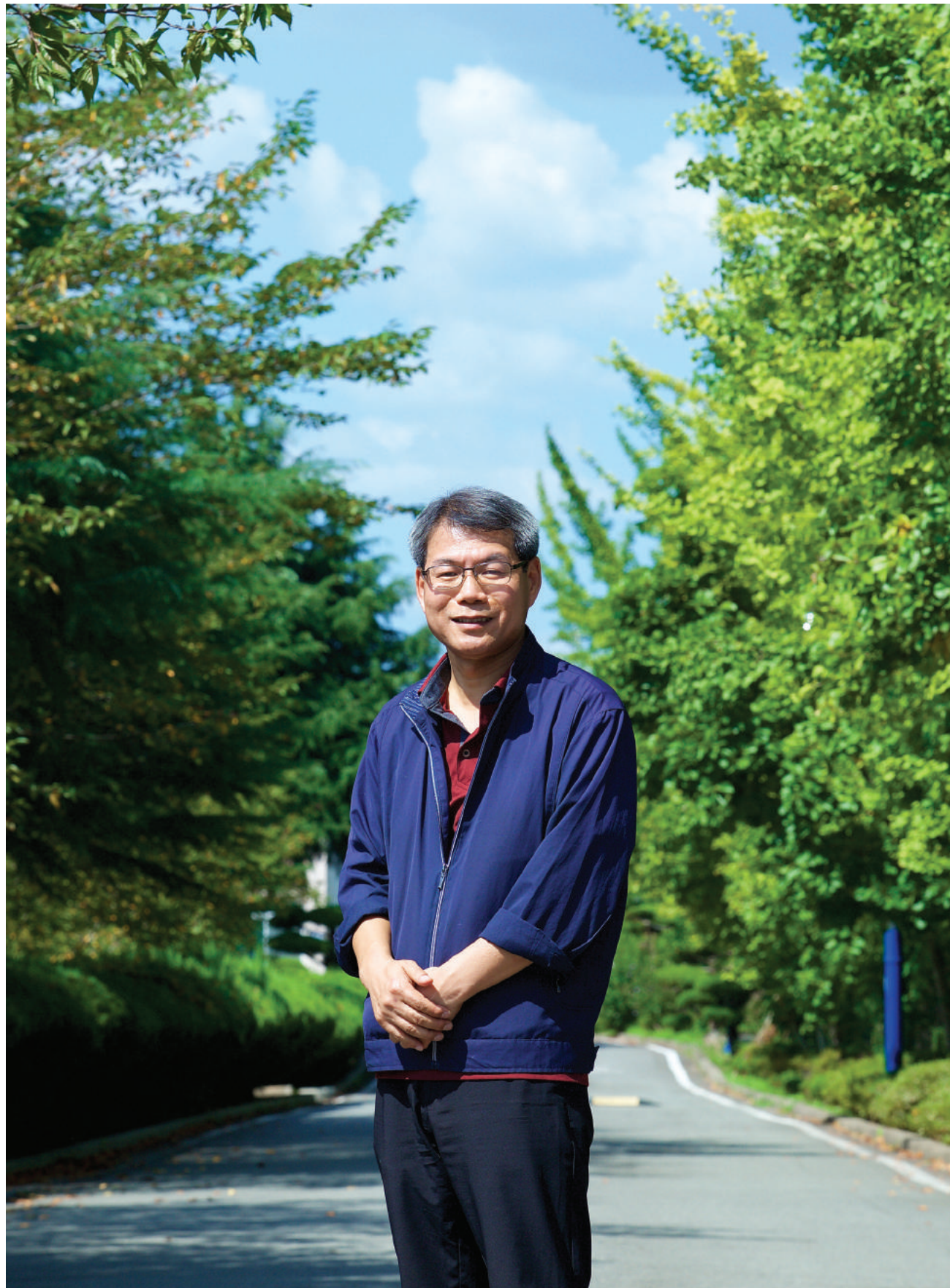
어쩌면 우연히 찾아온 기회일 수도 있다. 그가 택한 교사의 길은, TV에 나온 교사모집 광고를 우연히 보고 ‘교사 자격 시험이나 한 번 볼까?’라는 생각에서부터 출발하였다. 증권회사, 건설회사 등 소위 말하는 ‘잘나가는 직장’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제공하였지만, 그의 마음 한 켠에 자리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지는 못했다. 그렇게 4번 일터를 옮기며 5번 만에 찾은 교사의 길, 하지만 기존에 다니던 직장에 비해 턱없이 낮은 박봉에 잠시 망설이기도 했다. “교사 모집공고를 보고 시험에 응시해서 곧바로 합격했지만, 처음엔 몇 달 해보고 적성에 맞지 않으면 그만둘 생각이었습니다”며 당시의 심정을 솔직히 고백한다.

교사 생활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32세의 적지 않은 나이에 교사 생활을 시작하였기에 처음엔 잘 적응해 나갈지 걱정도 많았다. 하지만 승진과 성공에 몸부림쳐야 살아남는 일반 직장 생활에선 경험하지 못한 ‘가르치며 얻는 보람’을 느끼며 교사란 직업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다.

“출근할 때 고개 숙이고, 퇴근할 때도 고개 숙여야 하는 게 우리네 직장생활이잖아요. 그만큼 상사 눈치도 봐야 하고, 승진을 위해 몸부림쳐야 살아남는… 하지만 교사는 성심껏 지도하면 조금씩 변화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변화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교사란 직업을 택하길 잘했구나’ 생각하게 되었죠.”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길

신임 교사 시절에는 교육에 대한 방향을 정하지 못해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도 많았다. ‘그저 주어진 과목을 열심히 가르치는 것만이 교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가’, ‘어떻게 하면 아





四 顛 五 起

“노력하지 않으면 도전할 수 없고, 도전하지 않으면 성취할 수 없잖아요.
어렵다 생각하고 도전하지 않는 아이들을 보며 ‘실패해도 좋으니 과감하게 도전해라’,
‘그 길이 아니면 돌아가면 된다’고 독려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 아이들
스스로 자신감을 갖고 도전하게 되더라고요.”

이들 스스로 자신의 적성을 찾고, 그에 맞는 길을 택하게 할 것인가' 등. 그런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스스로 묻고 답하길 수없이 반복하며 그는 자신만의 교육관을 확립해갔다. 바로 다양한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전공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이다.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자격증을 취득한 졸업생들이 그렇지 못한 학생에 비해 관련 회사에 쉽게 취업하였고, 또 하나는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적성을 찾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4번의 직장 생활을 통해 얻은 다양한 경험이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그 과정과 결과 모두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아이들이 자격증 취득에 흥미를 갖고 스스로 그 필요성을 깨닫게 하려고 그는 밤늦은 시간까지 실습실을 개방하고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공모 사업에 지원하여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이들도 돈 걱정하지 않고 자격증에 도전할 수 있도록 시험 접수비도 마련해주고 있다.

더 나은 교육을 향한 고민

어릴 적 감명 깊게 읽었던 프로스트의 시 ‘가지 않은 길’은 그가 지금의 교육 철학을 확립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그리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향해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아이들 스스로 고민하고 도전하도록 끊임없이 독려하는 것이 참교육이라 믿게 된 것. “노력하지 않으면 도전할 수 없고, 도전하지 않으면 성취할 수 없잖아요. 어렵다 생각하고 도전하지 않는 아이들을 보며 ‘실

패해도 좋으니 과감하게 도전해라’, ‘그 길이 아니면 돌아가면 된다’고 독려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 아이들 스스로 자신감을 갖고 도전하게 되더라고요.”

이를 위해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도전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자격증 10개 취득을 목표로 삼고 도전했는데, 5개 밖에 취득을 못 하는 경우가 있다. 어쩌면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50%는 성공한 것이다. 부분적으로나마 성취를 맛보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도전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결과 대다수의 학생들이 졸업 전까지 여러 개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다. “실패가 두려워 도전하지 않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무작정 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하지만 제 말을 믿고 따르는 아이들을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 보람

28년간 쉬 없이 달려오다 보니 이제는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낀다. 밤 10시까지 실습실을 개방하여 아이들을 지도하고 토요일에는 방과후 교실까지 운영하다 보니, 피로가 누적되어 아침에 일어나기조차 어렵다고 한다. 몇 년째 앓고 있는 역류성 식도염도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힘 닿는 데까지 이 일을 멈추지 않는다는 그의 각오는 변함이 없다. 그만큼 나날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기 때문이다. “제 스스로 선택한 길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지요. 그래도 스승의 날 찾아와 고맙다고 인사를 전하는 졸업생을 보면 힘 닿는 데까지 계속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퇴직하는 그 날까지 멈추지 못할 것 같습니다.”





투명 유리문 속 교장 선생님

이
홍
신
김
포
사
우
초
교
장

교장실 문 앞에서 잠깐 망설여야 했다. 교장실 안이 훤히 비치는 투명 유리문인 것도 어색했고 교장실이라는 현판보다 ‘소담터’라는 양증맞은 현판이 먼저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문밖에서 쭈뼛거리는 인기척을 느낀 듯 이홍신 교장이 고개를 들고 들어오라며 반가운 손짓을 했다. 교장실로 들어서자 지나가던 학생들이 교장실 안으로 스스럼없이 얼굴을 쑥 내밀며 호기심을 드러낸다. 교장실의 경계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장실 문이 투명한 유리문으로 바뀐 사연을 들어보았다.

투명 유리문이 달린 ‘소담터’

투명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 상석 없는 원형 테이블 두 개가 먼저 눈에 들어온다. 요즘 원형 테이블은 격의 없는 대화의 상징이었는데 교장실에 원형 테이블이 두 개씩이나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운동장 쪽으로도 출입문을 만들어 둔 것도, 운동장을 향해 난 투명 창의 높이도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1층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듯 창은 아이들 키보다도 낮았다. 지나가던 아이들도 언제든지 교장실 안을 들여다볼 수 있으니 교장실은 완전히 공개된 공간이다. 이홍신 교장의 첫 화두도 교장실의 문턱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학교 교장실 많이 다녀보셨지요. 어때요, 우리 학교 교장실? 좀 낯설죠? 교장실은 닫힌 공간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곳은 좀 다르죠. 들어올 때 ‘소담터’라는 간판 보셨어요? 처음엔 소담터라고만 간판을 달았더니 외부인들이 저를 못 찾아와 헤매는 경우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교장실이라는 문패를 함께 달긴 했지만, 선생님들과 아이들은 이곳을 소담터라고 불러요. 서로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라는 뜻이지요.” 그는 교장 공모제를 통해 2011년 사우초등학교에 부임해 4년간의 공모 교장 임기를 마친 후 교사들과 학부모의 신임을 얻어 교장에 재임용되었다. 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만큼 교장으로서 열정이 남달랐다. 부임한 이듬해에 혁신학교로 지정되면서 예산도 적잖이 확보할 수 있었다. 덕분에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외형적인 변화는 전보다 쉽게 추진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교사들의 내면까지 살피는 데는 부족함이 있었다고 털어놓는다.

“벌써 7년 전 이야기지만 처음엔 선생님들의 표정에서 경계의 눈빛이 느껴졌어요. 새로 온 교장이 혹시라도 귀찮은 일을 벌일까봐 걱정하는 눈치였어요. 쉽게 의견을 드러내지 않더군요.

뭔가 새로운 의견을 내놓았다가 결국, 부메랑처럼 자기업무가 되어 돌아오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일단 교장실의 문턱을 낮추고 평교사들과 좀 더 깊이 있는 소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낮아진 교장실 문턱과 소통

‘교장실은 늘 열려있고 교장은 늘 교사와 아이들과 함께 소통하기를 원한다.’

진심이었고 간절했지만, 진정성이 잘 전달되지 않는 것이 문제였다. 교장실은 결재를 올리거나 공식적인 업무가 있어야만 방문할 수 있는 곳이라는 고정관념이 컸던 탓이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교장실을 말 그대로 투명하게 만드는 일이었다. ‘교장실은 늘 열려있다’는 말을 가장 확실하게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싶었다고 한다. 한편으로는 언제든 교장실로 들어와 달라는 간절한 부탁의 표현이기도 했다. 교장실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다. 물론, 먼저 손을 내민 쪽은 이흥신 교장이었다. “우리문이 투명하니까 선생님들이 복도를 지나가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럴 때마다 교장실로 불러들였어요. 사실, 교장이라는 존재 자체가 선생님들에게는 어려운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선배로 다가가 아이들 가르치는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를 가리지 않고 마음속에 담긴 것들을 끄집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진심도 어느 정도 전달된 듯했고 선생님들이 고민하는 것, 염려하는 것이 어떤 것들인지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교사들의 바람은 여러 가지로 표현되었지만, 그 뜻은 대체로 비슷했다. 수업에 집중하고 싶고, 좋은 수업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면 우선, 교사들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여야 하는데 이것은 교수학습지원팀의 조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결했다. 그다음은 ‘좋은 수업’을 지원하는 문제였다. 교사들은 ‘내가 잘 가르치고 있는지, 내 수업이 바른 방식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이에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동료 교사들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려면 교사들 간에도 하고 싶은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었다. 교장과 교사 사이의 소통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교사와 교사 사이의 소통이었던 셈이다.

열려 있는 교실문

사우초등학교에서는 모든 교실이 열려있다. 언제든 누구든

지 수업을 참관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학부모나 외부인사들을 위한 공개수업이 아니다.

“수업을 상시로 공개하는 것은 교장의 의지와 리더십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중간의 핵심리더 역할을 하는 학년부장님들의 희생과 헌신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교단 선배들이 먼저 용기를 내어 자신의 수업을 공개하기 시작했어요. 선배들이 먼저 후배들의 평가를 받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 힘으로 상시 수업공개가 문화로 정착할 수 있었어요.”

물론 시행착오는 있었다. 수업 공개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 수업이 종종 동료 교사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수업’으로 흐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 주었다. 어느 순간부터 누가 교실 뒷문을 ‘드르륵’ 연다 해도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그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수업 모드로 전환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변화가 문화로 뿌리 내리다

“이런 변화가 금방 생겨난 건 아니었어요. 혁신학교 3년째부터 수업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으니까요. 4년 차에 접어들자 쫓이 피듯 선생님들 사이에 퍼지더니 5년 차에는 열매까지 얻은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여기까지 오는 데 7년이 걸린 것 같아요.” 이흥신 교장은 상시 수업공개 문화가 ‘토론’의 결과물이라고 말한다. 수업을 공개해보자는 말을 꺼낸 것은 교장이었지만 실행에 이른 것은 교사들끼리 치열하고 지속적인 토론을 거쳐 내린 결론이라는 것이다. 교사들 간에 공감대가 형성되었기에 문화가 되었다고 한다. 단순히 교장의 지시사항 정도에 머물렀다면 길게 가지 못했을 것이다.

“공립학교 구성원들의 임기는 4년밖에 되지 않잖아요. 사실 혁신학교 초창기에 치열하게 토론하고, 수업을 공개하며 변화를 끌어내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던 선생님들은 현재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학교에 새로 부임하신 선생님들도 수업을 공개하고 서로의 수업방식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문화로 깊이 뿌리 내렸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변화의 중심에 섰던 이흥신 교장은 내년에 정년 퇴임을 한다. 주변에서는 벌써 그의 빈자리를 걱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흥신 교장은 기우라고 말한다. 구성원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뿌리내린 문화는 리더가 바뀐다고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소담터

“수업을 상시로 공개하는 것은 교장의 의지와 리더십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중간의 핵심리더 역할을 하는 학년 부장님들의 희생과 헌신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교단 선배들이 먼저 용기를 내어 자신의 수업을 공개하기 시작했어요. 선배들이 먼저 후배들의 평가를 받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천년의 시간을 함께 걷다

엄마와 딸의
경주 산책 이야기

이지현 울산 호계고 교사



경주(慶州). 신라의 수도로 천 년 역사를 가진 도시. 예부터 경주는 역사의 도시이자 주변 지역과 쉽게 연결되는 길이 있어 교통의 중심 역할을 했다. 지나간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이야기가 서려있다는 것. 그렇기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발자국을 찍을 법한 도시이기도 하다. 이지현 울산 호계고 교사는 가을이 다가올 무렵, 엄마와 경주를 걷고 싶다 말했다. 한 발자국을 내딛으며 웃었고, 두 발자국을 걸으며 울었다. 모녀에게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있을까? 경주만큼이나 아련한 이야기가 담겨 있을 그녀들의 동행을 따랐다. 그렇게 이지현 교사와 그녀의 어머니 양진선 여사의 초가를 경주 산책이 시작되었다.

꿈보다 중요했던 엄마와의 약속

“울산과 경주는 30분 거리에 있어서 마음이 답답할 때마다 경주를 찾아요. 천년고도의 정기랄까? 좋은 기운들이 있거든요.”

경주의 숨겨진 명소 산림환경연구원 오솔길을 걸으며 지난 십 년의 아련했던 기억들을 꺼낸다. 평범하지만 화목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이 교사는 자신이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만날 거라곤 십 년 전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다고 한다.

“거창하지만 꿈이니까... 슈바이처와 같은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세계 각지를 탐험하고 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싶었지요. 텔레비전에서 세계불우 아동들의 구호기금 광고가 나오면 부족한 용돈을 털어 성금을 내기도 했어요. 그러나 엄마는 딸이 교단에서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사가 되길 바라셨어요. 하지만 제 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에 의사가 될 준비만 했었어요. 가고 싶은 나라를 정하기도 하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대학시절 꿈꿨던 미래만큼 설렘의 크기도 커졌지만, 그 무렵 청천벽력 같은 일이 닥쳤다. 바로 엄마의 대장암 선고. 이 교사는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동네에서 효녀라 소문난 이 교사는 아픈 엄마를 두고 떠날 수가 없었으니까.

“엄마는 어릴 적부터 나를 항상 씻겨줬는데, 저는 그때서야 처음으로 엄마를 씻겼어요.”

울산대병원 8병동 끝자락의 샤워실. 이 교사는 대수술을 마치고 회복실에서 갓 나온 엄마를, 난생 처음으로 샤워기가 아닌 눈물로 엄마의 몸을 씻겼다. 세상의 그 어떤 엄마들보다 강하다고 믿었던 엄마. 자신의 버팀목으로 평생을 희생하신 그런 엄마가 대장암 판정을 받고는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다. 그렇게 모녀는 딸이인 아들에게 더 신경 썼던 지난날을, 그런 엄마가 야속했던 지난날을 서로 부둥켜안고 상처를 어루만졌다.

그리고 엄마와 약속을 지켰다. 엄마가 이루지 못한 교사의 꿈을 자신이 꼭 이루겠다는 약속. 그 약속은 이 교사의 인생에 있어 가장 큰 변화의 길을 걷게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변화를 두려워했던 시절,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왔나 몰라요. 솔직히 임용시험은 아무나 합격하는 게 아니잖아요. 별 생각 없던 그 시절 엄마와 덜컥 약속한 제 자신이 신기해요.” 모녀는 꼭 잡은 손을 더욱더 움켜쥔다.

가장 가까운 친구, 엄마와 딸

두 모녀에게 경주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고 묻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누가 시킨 듯 한 목소리로 대답한다.

“한복을 입고 친구처럼 다니고 싶어요.”

대답을 들은 기자는 경주 교촌한옥마을로 향했다. 두 모녀는 서로 한복을 골라주며 쉬지 않고 웃어댔다. 말 그대로 친구와 같은 모습으로...

“엄마, 머리에 꽃 달면 사람들이 ‘동네에 저런 사람 꼭 한 명쯤은 있어’라고 말할지도 몰라.” 그러면서 도 엄마의 꽃 머리띠를 바로 잡아주는 이 교사다. 사진기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은 채 셀카 봉을 들고 연신 셔터를 눌러댄다.

“지현아, 니 결혼하고, 아 낳고 우리 이렇게 둘이 나와 본 거 처음이제? 올해 엄마 환갑인데 이 시간 보다 더 좋은 선물은 읊따.”

어느 덧 엄마가 되어 버린 딸을 양 여사는 안쓰럽게 쳐다본다. 이내 양 여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경주에 오니까 니 어렸을 때 같이 벚꽃구경 왔던 거 생각난데이. 쩌만한 게 학교는 잘 다닐까? 친구들과 사이에서 기죽지는 않을까? 하지만 그런 걱정은 다 기우였데이. 니가 엄청 자랑스러워. 나이 먹었는데도. 요즘 친정이고, 동네에서 니 자랑한다고 뿌듯함을 넘어 진짜 행복하다. 고맙데이.”

신라시대 모녀들도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이만큼

애뜻했을까.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모녀는 해지는 노을 밑에서 한참을 그렇게 울다 웃다를 반복했다.

엄마의 내리사랑처럼 아이의 등을 감싸 안는 교사로

“엄마, 안압지 가야지. 해진다. 엄마랑 어두워질 무렵 안압지 보고 싶다.”

오후 6시 48분. 일몰 시간에 맞춰 안압지의 모든 조명이 불을 밝혔다. 관광객의 탄성이 터져 나오고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명당자리를 잡고 추억을 담기 시작했다.

“지현아, 아 낳고 복직하니 힘들제? 어땠노?”라며 양 여사는 올해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딸을 걱정한다. 임용 후 처음으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게 된 이 교사의 목소리는 한 치의 망설임이 없다.

“아니! 좋아. 애들이 수업에 집중도 잘하고 연차가 쌓일수록 더 보람을 느껴. 엄마 말 듣고 교사하길





“앞으로 내 교직생활에서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더 큰 위기도 올 것이라 생각해. 난 퇴직하는 그 순간까지 아이들의 등을 토닥여줄 수 있는 교사가 되고 싶어. 엄마가 내게 그래왔듯이 말야.”

진짜 잘했어. 엄마 말 안 듣고 오지 탐험했으면 고생만 했겠지? 역시 엄마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니까!”

하지만 이 교사는 엄마가 궁금해 하는 학교생활의 고민들을 늘 그랬듯 엄마에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모녀라기보다는 마치 친구 같은 모습이다.

“늘 엄마가 하는 얘기처럼 선생님은 학생들보다 조금 더 아는 지식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아이들과 소통하는 것이라 믿고 있어. 하지만 요즘은 과중된 업무로 아이들의 얼굴을 한 번 더 보기보다는 컴퓨터 앞에 앉아 업무를 처리하고 기한 내에 처리한 것에 만족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50분 수업을 마치고 나면 늘 아이들과 내 자신에게 미안해지는 이유는 뭘까? 조금만 더 시간이 주어졌다면 더 멋진 자료와 내용으로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아. 하지만 얼마 되지 않은 교사 경력이지만 아직도 아이들을 향한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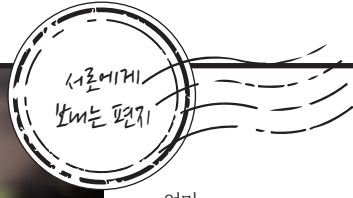
마음은 여전해. 교육에 대한 열정만큼은 남다르다고 말할 수 있어. 난 아이들이 좋아. 예전에는 자는 모습을 보면 화가 났는데 이제 엄마가 되고 보니 안쓰러운 마음이 더 강해진 것 같아. 자는 아이의 등을 한 번 쓰다듬게 돼. 이번 주 수업에서도 수많은 아이들의 등을 토닥여. 앞으로 내 교직생활에서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더 큰 위기도 올 것이라 생각해. 난 퇴직하는 그 순간까지 아이들의 등을 토닥여줄 수 있는 교사가 되고 싶어. 엄마가 내게 그래왔듯이 말이야.”

힘든 시간을 극복하고 마주한 모녀의 동행은 더욱 애뜻해보였다. 서로의 대한 믿음과 사랑이 이루어 낸 교직생활. 아이들의 등을 토닥이며 내리사랑을 실천하는 그녀들의 모습이 기자의 눈에는 조명에 비친 동궁과 월지의 모습보다 아름다워 보였다. 앞으로 남은 이지현 교사의 교직생활을 힘차게 응원한다.

‘아름다운 동행’참가 모집

<The-K 매거진>에서 ‘아름다운 동행’을 함께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가족, 친구, 제자 등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떠나고 싶다면! 아래 메일로 성함, 연락처, 참여 인원 및 관계와 참가 이유를 10줄 내외로 적어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동행을 떠날 수 있도록 <The-K 매거진>이 함께합니다.

<The-K 매거진> 편집실
E-mail. leemj@swadcom.co.kr



바라보고만 있어도 따뜻한 우리 엄마



엄마의 딸로 태어나서
행복했고,
지금도 너무 행복해!

엄마,

난 어릴 때부터 참 작았고, 말도 조리 있게 잘 못했던 것 같아.

이런 날 엄마는 버벅대고 앞뒤 맞지 않는 내 이야기를 말없이 잘 들어 줬어. 어느덧 엄마의 예쁘고 자랑스러운 딸로 지금은 교단에서 많은 아이들을 위해 이야기하고 웃으며 그때를 회상하는 것 같아.

내게 엄마는 늘 자신감 넘치는 사람, 울곧은 사람이었고 많은 걸 배우고 싶은 사람이었어. 누군가 내게 존경하는 인물을 물은 적이 있었어. 난 흔한 위인들이 아닌 엄마라고 자신 있게 말했어. 엄마는 내가 참 배우고 싶은 사람이었거든. 지금도 엄마의 긍정적인 마인드를 보고 자라와서 그런지 항상 모두에게 즐거움과 행복에너지를 전달하는 사람으로 지내고 있는 것 같아.

엄마의 딸에서 지금은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어. 엄마라는 자리가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 아직은 엄마가 아닌 우리 엄마의 딸로 지내고 싶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 그래도 잘 이겨낼 수 있는 건 든든한 우리 엄마가 내 곁에 있기 때문이야.

엄마는 늘 엄마에게 받은 사랑 엄마에게 돌려주지 말고 네 자식에게 돌려주라고 말했었지. 나도 엄마처럼 우리 딸에게 멋지고 현명한 엄마가 될 수 있도록 엄마가 많이 응원해줘.

엄마의 딸로 태어나서 행복했고, 지금도 너무 행복해! 엄마에게 받은 온큰 사랑 베풀며 살 수 있는 내가 되고 싶어. 많이 사랑합니다.

- 딸 지현

지현아,

지난날을 돌아보니 너한테 엄마가 잘해준 것이 없는 것 같아 정말 미안해. 너는 혼자서도 모든 일을 잘해 나가기에 엄마는 맘이인 오빠한테만 신경을 더 많이 쓴 것 같아. 하지만 너는 엄마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예쁘고 사랑스럽게 성장해줘서 고마워.

사랑하는 딸!

이 세상에 무엇이 있어 행복하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오빠와 지현이 너야. 건강하고 착한 아들과 딸로 커줘서 정말 행복하단다. 특히 너의 결혼식 날 한 번 더 행복함을 느꼈단다. 엄마의 딸로 태어나서 정말 고마워.

지현아,

이 가을에 낙엽 밟는 소리 들어가면서 가까운 곳이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경주를 다녀온 것처럼 또 다시 한 번 가자구나. 친구 같은 딸로, 친구 같은 엄마로, 오늘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자.

- 엄마가

사랑하는 딸에게



너의 결혼식 날 한번
더 행복함을 느꼈단다.

엄마의 딸로 태어나서 정말 고마워



모녀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경북 산림환경연구원

야생화원, 무궁화동산, 산림전시실, 습지생태원 등 오랜 세월 가꾸어 온 아름다운 산림자원을 바탕으로, 매년 연구원을 찾아오는 30만 명 가량의 관람객에게 산림문화를 즐길 수 있는 심터를 제공한다. 숲 해설 프로그램과 유아 숲 체험원도 성황리에 운영하고 있다. 단체 방문 또는 안내를 받고 싶다면 최소 3일 전에 예약해야 하며, 숲 해설 프로그램의 최소 인원은 10명이다. 예약을 하고 이곳에 방문하면 숲 해설가 선생님들이 산림환경연구원을 안내하며 식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숲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해준다. (단, 숲 해설가 인원에 따라 선착순으로 운영한다.)

- 📍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통일로 367
- ☎ **전화** 054-778-3800
- 🕒 **시간** 개관: 오전9시, 폐관: 오후5시
- 📌 **안내** kbfoa.go.kr



경주 교촌 한옥마을

중요민속자료 제27호인 '경주최씨고택'과 중요무형문화재 제86-다호인 '경주교동법주'가 자리 잡고 있는 교촌마을은 9대에 걸쳐 진사(進士)를 배출한 경주 최부자 가문의 일이 서린 곳이다. 최부자 가문의 가훈이자 원칙인 "벼슬은 진사 이상은 하지 말라, 재산은 만석 이상 모으지 말라, 과객(過客)을 후하게 대접하라, 흥년에는 남의 논밭을 매입하지 말라, 최씨 가문 며느리들은 시집온 후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라,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게 한다.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있으며, 공연·체험·전시가능하다.

- 📍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교촌길 39-2
- ☎ **전화** 054-760-7880~7881(경주시청 관광컨벤션과 교촌마을팀)
- 🕒 **시간** 연중무휴
- 📌 **안내** gyochon.or.kr



동궁과 월지(안압지)

<삼국사기>에 따르면 674년(문무왕 14년) 궁성 안에 못을 파고 산을 만들어 화초를 기르고 진금과 이수를 양육했다고 전해지며, 동궁과 월지는 이때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동궁과 월지는 신라 왕궁의 별궁이자 나라의 경사가 있거나 손님에게 연회를 열었던 곳으로 안압지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조선 시대 폐허가 된 이곳에 기러기와 오리들이 날아들자 붙여진 이름으로 정식 명칭은 아니다. 현재의 동궁과 월지는 고증을 바탕으로 신라 시대의 연못과 석축, 전각 등을 복원하여 만들어졌다. 특히 저녁이 되면 연못에 비친 반영이 매우 아름다워 경주야경 필수 코스로 꼽힌다.

- 📍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인왕동 26번지
- ☎ **전화** 054-772-4041
- 🕒 **시간** 09:00 ~ 22:00(마감시간 21:30)
- 🎫 **관람료** 어른/개인 2,000원, 어린이/개인 1,600원

다른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

모로코는 인구의 99%가 무슬림인 이슬람 국가입니다. 무슬림들에게는 꼭 지켜야 할 다섯 의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알라 이외의 다른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는 알라의 예언자라는 신앙선언,
두 번째는 하루 다섯 번의 기도, 세 번째는 가난한 이들에게 베푸는 자선, 네 번째는 평생 한 번은 꼭 해야 하는 이슬람교의 성지 메카 순례, 그리고 마지막이 한 달간의 축제 라마단입니다.



무슬림들의 축제의 달, 라마단

이슬람을 믿는 국가들은 우리의 음력처럼 달의 움직임에 따른 달력, 이슬람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른 점이라면 이슬람력은 예언자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해 무슬림 공동체를 세운 해를 이슬람력의 첫 해로 삼고 있다는 점이에요. 12개의 달들은 각각의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무함마드가 이슬람의 성서인 코란을 작성했다는 아홉 번째 달의 이름이 라마단입니다. 이 라마단 기간에는 해가 떠 있는 동안 모든 성인 무슬림들은 의무적으로 금식을 해야 합니다. 금식뿐만 아니라 물을 마실 수도 없고 흡연, 음주, 부부관계 등도 모두 금지됩니다. 환자, 월경 중인 여성, 모유 수유하는 여성 등에게는 예외가 인정되기도 하지만 그 외에는 상당히 엄격해서 제가 있던 모로코에서는 라마단 기간에 공공장소에서 물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을 경우 두 달간 감옥까지 가야 한답니다.

이방인인 우리 눈에는 단지 그 기간이 단식과 금주의 힘든 날로만 여겨지지만 사실 라마단은 무슬림들에게는 특별한 축제의 달입니다. 라마단이다 가오기 한참 전부터 여자들은 라마단 기간에 먹는 특별한 음식들을 준비하느라 바쁩니다. 모로코에서는 라마단 기간에 하리라(토마토 수프), 쯤마르(대추야자), 슈베키아(기름에 튀긴 전통과자), 삶은 계란과 우유 등을 기본으로 그 외에 가정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맛있는 음식들을 만듭니다.

모스크에서 해가 저물었음을 알리는 마지막 아잔 소리가 들리면 각 가정에서는 신에 대한 기도를 하고, 대추야자를 시작으로 가족들과 함께 만찬을 즐깁니다. 낮 동안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한 이들이 주린 배를 채운 풋도르(첫 식사)가 끝나면 그때부터는 모두 집 밖으로 나와 어느 때보다 열정적인 라마단의 밤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무대를 세워 특별공연을 하기도 하고,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원이 임시로 만들기도 하며, 평소 집 밖으로 잘 나오지 않던 모로코의 여자들도 라마단 기

간만큼은 밖에서 쇼핑도 하고 모여서 수다를 떨기도 합니다. 일 년 중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이들이 한꺼번에 나와 즐기는 라마단의 밤, 그래서 라마단의 한 달은 일 년 중 그 어느 때보다도 즐거운 축제입니다.

가난한 냄새 가득한 토마토 수프

라마단이 시작되기 전부터 동네 공터에는 큰 천막이 쳐졌습니다. 가난해서 식사를 잘 챙길 수 없는 이들을 위해 라마단 기간에 저녁을 제공하는 자선단체의 천막이었습니다.

“난 가난한 자원봉사자니까 나도 여기서 밥 먹을 수 있는 거야?”라며 호기심에 기웃거리다 우연히 단체에서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일은 단순했지만 결코 쉽지 않았습니 다. 오후 6시, 15개의 테이블과 150개의 의자를 나르는 것으로 시작되는 일은 밤 11시가 되어 수백 개의 그릇을 씻는 설거지와 함께 끝이 났습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는 7시 반, 모스크에서 아잔(예배를 알리는 소리)이 울리면 제가 살던 동네와 잔의 가장 가난한 이들은 천막 안에서 알라에 대한 감사 기도와 함께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른 모로코 봉사자들과 함께 식사도 건너뛰고 정신없이 수백 명에게 음식을 날랐습니다. 150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없어 천막 밖에서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도 많았고, 바닥에 그릇을 놓고 먹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어설픈 아랍어로 ‘맛있게 드세요’라고 인사를 하는 제 손을 꼭 붙잡고 많은 이들이 고맙다고 말하거나 안아주었습니다.

무슬림

이슬람 신도를 가리키는 무슬림(Muslim)은 전지전능한 유일신인 알라(Allah)에 '절대 순종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전 세계에 약 16억 명이 분포해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당근과 토마토, 병아리콩 등으로 만든 모로코의 전통 수프 '하리라'에 '람산만'이라는 빵을 찍어 먹는 맛은 별미이다.



하지만 솔직히 몸이 힘든 것보다 마음이 더 곤란했습니다. 50도 가까운 여름이었는데도 몇 겹씩 두터운 옷을 껴입은 노숙자 아줌마들이 고맙다고 안아줄 때면, 감사하면서도 한 편으로는 벼룩이나 이가 옮지 않을까 머리 한 쪽으로 걱정했습니다. 하나의 그릇으로 여러 명에게 토마토 수프를 담아 주다 보니, 누가 먹었던 그릇인지도 모르게 되어 버려 같이 식사하지는 그들의 말에 웃으며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곳을 드나드는 수백 명의 남루한 이들에게서 나는 냄새와 함께, 토마토 수프가 옆질러졌던 테이블보를 한 달 내내 빨지 못하자 더운 천막 안은 토마토를 먹고 토한 것 같은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숨쉬기만 해도 구역질이 올라올 것 같아 일하는 중간 중간 천막 바깥으로 나가 숨을 크게 들이 쉬어야만 했습니다. 시큼한 냄새가 자꾸 떠올라 라마단이 끝나고 다음

라마단이 돌아올 때까지 토마토 수프를 먹지 못했습니다. 토마토 수프는 그렇게 가난한 냄새로 제 기억에 남았습니다.

마음이 아파오는 아이들의 웃음

라마단의 마지막 날에는 모로코의 각 도시에서 헌 옷들을 수거하여 자선단체로 보내옵니다. 그 대부분이 아이들을 위한 옷입니다. 사실 아프리카에는 유럽에서 넘어온 헌 옷들이 넘쳐납니다. 시장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중고 옷들은 유행이 좀 지났을 뿐이지 그다지 비싸지도 않아 몇 백원에서 몇 천원이면 괜찮은 옷들로 고를 수 있습니다. 저도 종종 시장에서 그런 옷들을 사 입기도 했던지라 창고 앞에 쌓인 옷들을 보며 '이걸 대체 누가 입을까?' 라는 생각을 했지만 괜한 생각이었습니다. 창고 문을 열기 전부터 옷을 얻기 위해 아이들은





긴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쌓여있는 옷더미 속에서 색깔, 디자인 따위 아무 상관없이 골라내어 아이들에게 몸에 대충 맞춰보고 크기만 맞으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서너살 먹은 꼬맹이부터 중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까지, 그 날 밤은 자정이 넘도록 밀려드는 아이들에게 옷을 나누어 주느라 허리가 아팠습니다. 한국에서라면 한참 예쁜 옷을 사달라고 조를 나이의 아이들이 ‘고맙습니다’ 라고 웃으며 인사하는데 그 웃음에 오히려 마음이 더 아파져서 말없이 옷더미만 뒤졌습니다. 이들의 가난은 겪어보지 못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

모로코를 다녀온 이후, 저는 타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해야 했습니다. 단순히 종교의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무슬림들에 대한 무지의 소치였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의식주 같은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각자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아랍어가 웬만큼 익숙해진 후에 이전보다 더 소통에 어려움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거짓말에 대해 한국보다 관대한 문화이다 보니

답답할 때도 많았고, 화가 나서 싸울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친 나를 다독겨려 일으킨 것도 사람들이었습니다. 와잔의 가난한 사람들은 처음 보는 동양인인 나를 반가워 해주었습니다. 어린 손자와 함께 빈 통에 남은 토마토 수프를 담아가던 걸인 노파는 나를 보고 몇 번이나 고맙다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예쁜 눈을 가진 메리엄은 헌 옷을 받아들고서 내 목을 끌어안고 양쪽 뺨에 뽀뽀 해주었습니다. 함께 봉사를 하던 모로코 사람들은 라마단 행사가 끝난 후에도 만날 때마다 반가워하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결코 서로를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득문득 그들과 함께 라마단 음식을 나눠 먹으며 수다를 떨던 그때를 그리움으로 떠올리는 것은 그들에게 중요한 가치인 타인에 대한 친절과 나눔 때문일 겁니다. 모로코에서 무슬림들에게 받은 것들은 한국인들에게 다시 받기 어려운 것이었으니까요. 몸으로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감히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건 자만입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가슴으로 이해하고 싶게끔 만드는 용기,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다문화 이해의 지향점이 아닐까요.

정혜원

남편도 직업도 잠시 덮어두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모로코로 해외 교육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그녀는 이를 모로코와의 연애라고 표현한다. 올해 한국으로 돌아와 또 다른 연애를 시작했다. 바로 울산 서부초등학교 아이들과 함께 말이다.



세브란스 암병원 직장인 밴드

‘암자바’

마음으로 연주해서일까 선율이 따뜻하다

세브란스 암병원 방사선중양학과와 고민 중 하나. ‘방사선 치료 외에 암 환자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없을까?’ 고민하던 차에 떠오른 아이디어 하나, ‘암 환자와 보호자를 위해 우리가 직접 공연하자’ 그렇게 결성된 직장인 밴드 동호회 ‘암자바’의 아름다운 선율을 들어보자.



연주 초보자끼리 결성한 밴드

지난 2007년 가을, 세브란스 암병원 방사선종양학과에서 암 환자와 보호자들을 위해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심포지엄 개최 준비 과정에서 방사선종양학과는 ‘어떻게 하면 방사선이라는 결코 쉽지 않은 치료를 받고 있는 암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고, 깜짝 공연이라는 아이디어를 냈다. 좋은 생각이라며 유명 가수를 섭외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그런데 이때 “암 환자와 직접 대면하는 우리가 공연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을 한 이가 있었다. 이상규 방

사선종양학과 2치료파트장이었다. 이상규 파트장의 의견에 대한 방사선종양학과 사람들 반응은 대부분 이랬다. ‘취지는 좋지만 누가 공연하지?’ 그런데 한 명 두 명 조심스레 공연을 해보겠다는 이들이 나타났다.

밴드 공연을 하려면 기타, 베이스기타, 건반, 드럼을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데 공연에 동참하겠다는 이들 중에서 악기를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는 이는 전무했다. 남들 앞에서 연주할 정도가 아니라 그저 혼자 즐길 수준이었다. 게다가 연습할 장소조차 마땅히 없었으니 현실은 난

감함 그 자체였다. 하지만 희망의 빛 줄기가 비쳤다. 박효국 선생이 “내가 다니는 교회가 병원 근처인 연희동에 있다. 그곳 연습실을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는 말을 했고 다행히 교회는 허락해줬다.

생각보다 큰 성과를 거둔 첫 콘서트

연습실이 정해지자 밴드 이름을 정하자는 얘기가 나왔다. 이런 저런 이름이 나왔지만 찬성 표를 가장 많이 얻은 건 ‘암자바’였다. 멋진 이름들이 후보로 나왔지만 암 환자를 위한 공연이니만큼 ‘암을 잡자’는 의미의 암자바로 결정됐다. 암자바, 밴드 이름까지 정해지자 멤버들의 의욕은 급격한 상승 곡선을 그렸다. 모두들 일이 끝나면 군소리 없이 일주일에 두세 번 연습실로 갔다. 연습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밤 12시. 이상규 암자바 회장은 “아내의 불만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어요. 이혼하지는

말까지 들었더니깐요”라는 말을 웃으며 한다.

암자바 멤버들은 첫 공연에 올릴 곡을 철저히 관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했다. 암 환자의 나이가 대부분 지긋하다 보니 ‘동네 꼬마 녀석들~’로 시작하는 노래 ‘연’을 비롯해서 따뜻하고도 힘이 나는 가사의 ‘사랑이 꽃보다 아름다워’, ‘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등으로 선곡했다.

드디어 암자바의 첫 공연 날,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은 가득 찼다. 공연 내내 보여준 관객의 호응은 놀라웠다. 휠체어를 타야만 했던 환자가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기도 했고, 늘 우울한 표정을 짓고만 있던 환자가 노래를 따라 불렀다. 그 모습에 암자바 멤버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환자들의 반응이 정말 놀라웠어요.”

이상규 회장은 ‘공연 당시에 보여준 환자들의 호응에도 놀랐지만, 이후의 반응에 더 큰 의미를 두

암자바 밴드 대외 활동

2010년 ‘국제 한방 바이오 엑스포’ 전국 직장인 밴드

경연대회 본상 수상

2012년 ‘국제 암 엑스포’ 초청 공연

2014년 KBS ‘라디오 주치의 이충헌입니다’ 특별 출연

2014년 아시아경제 주관, 전국 직장인밴드 경연대회 본상 수상

2016년 암 환우 기금 마련 ‘암자바 밴드’ 공연





1. 세브란스병원 은명강당에서 가진 암 환우 돕기 자선 공연
2. 암자바는 제5회 아시아경제 직장인 밴드 대회에 참가했다
3. '2017 가족과 함께 안산에서 놀자' 무대에 올라 일반 시민들 앞에서 공연하는 암자바 밴드
4. 암 환우를 위한 공연이기에 무대 의상도 남다르다



고 있다고 말한다.

“환자 분들이 먼저 인사를 건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저희한테 수고 많다는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만큼 마음에 여유가 생겼다는 증거잖아요.”
이렇게 암 환자들에게 도움을 줬다는 생각에 벅찬 암자바 멤버들은 만장일치로 지속적인 공연을하기로 결정했다.

명실상부한 직장인 밴드로 우뚝 서다

2007년 첫 공연을 했으니 암자바가 결성된 지도 올해로 11년째다. 사실 10년 넘게 활동하는 직장인 밴드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유는 밴드라는 특성 때문에 어느 동호회처럼 가입하는 회원 수가 많을 수 없다. 그리고 공연이 장난 삼아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다. 각기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퇴근 시간이 들쭉날쭉해서 연습 시간을 정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암자바 밴드는 같은 부서 직원들로 구성돼 있고, 결성 목적 자체가 암 환자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이기에 똘똘할 수 있는 것.

지금껏 10회가 넘는 공연을 해온 암자바 밴드는 수익금 전액을 암병원에 기증했다.

“암자바 존재감이 처음에는 방사선종양학과 내에서만 있었는데, 지금은 병원 전체로 확대됐어요. 공연할 때 병원 차원에서 나서주니까 국악 공연단 ‘뿌리패’, 팝페라 그룹 ‘클라라’, 남성 그룹 ‘V.O.S’도 공연에 찬조 출연할 수 있었죠.”

암자바 밴드의 존재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2014년에는 KBS ‘라디오 주치의 이충현입니다’ 공개 방송에 출연했을 정도이니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듯하다. 명실공히 직장인 밴드 동호회로 자리매김한 세브란스 암병원 암자바.

“건조한 직장 생활에 즐거움을 주니까 많은 직장인들이 동호회 활동을 하죠. 암자바 밴드는 멤버들의 직장 생활에 즐거움을 줄 뿐 아니라 암 환자에게 활력까지 주는 일거양득의 동호회라서 의미가 더 큰 것 같아요.”

이상규 회장의 말 속에서 암자바 밴드의 따뜻한 연주가 들리는 듯하다.

가면의 인격, 페르소나를 넘어서

사회적 가면 속에 가려진 진정한 자아 찾기



“그렇게 착해 보이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줄 누가 알았어?”, “그 사람 겉보기와는 달라. 의외로 똑똑하고 재미있는 사람이더라고”, “자식 걸 낳지 속 낳겠냐? 천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법이야.” 이런 말은 사람의 겉과 속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심리학 관점에서 속과 전혀 다른 겉이 바로 페르소나다. “그 사람이 말을 안 하니까 나는 전혀 몰랐지. 겉으로는 모범적이고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고민이 많았는지 누가 알았겠어.” 사람들은 타인을 볼 때 주로 겉모습, 말투, 대화, 인상 등에 치중하기 때문에 페르소나를 완벽하게 치장하는 사람은 속마음을 알 수 없는 존재가 되기 쉽다. 남에게 보여줄 수 있는 내 모습, 때로는 속마음과 다른 모습으로 치장하고 연기를 해서라도 바람직한 이미지를 만들고 싶은 모습, 그것이 바로 페르소나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페르소나의 화려한 가면에 짓눌려 우리가 남에게 보여주지 못하는 진짜 내 모습은 무엇일까? 심리학에서는 그것을 그림자라고 말한다. 남에게 보여주지 싶은 내 모습, 울퉁불퉁하고 휘청거리는 모습이 바로 진정한 나와 가장 가까운 모습이다. 그 모습이 그림자인 것이다.

페르소나와 그림자의 거리가 멀수록 우리 마음은 깊은 고민에 빠진다. 말하자면 내 연기가 나의 진심을 억누르게 되는 셈이다.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모습 때문에 정작 내가 진심으로 느끼는 것들이 소외될 수 있다. 항상 아이들에게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선생님들은 페르소나가 아주 모범적이고 엄격한 모습으로 만들어지기 쉽다. 또 겉으로는 매우 명랑하고 유쾌한 페르소나를 보여주는 선생님도 알고 보면 남모름 스트레스에 속앓이를 하는 경우가 많다. 날이 갈수록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교육 환경 속에서 선생님들은 페르소나와 그림자가 점점 멀어지는 마음고생을 경험하곤 한다. 그런데 그림자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페르소나를 얽매고 바람직하게 유지하려 정작 우리는 내 진심이 더 많이 모여 있는 곳, 그림자가 깃들어 있는 무의식을 등한시한다. 그림자는 콤플렉스와 트라우마, 억압된 기억과 감정이 모두 모여 있는 무의식의 거대한 창고 같은 것이다. 그림자를 돌본다는 것, 그것은 자신의 상처를 지혜롭게 어루만져주는 것이며, 자신의 아픈 마음 속에서 내면의 진실을 찾을 줄 아는 혜안을 기르는 것이다.

페르소나와 그림자는 인격의 가면과 억눌리는 감정으로 볼 수 있다. 페르소나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를 생각하며 발달되는 인격의 가면이고, 그림자는 ‘페르소나로 연기하느라 억눌리고 소외되는 감정과 기억들’로 이루어진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에서 지킬 박사가 페르소나라면 하이드는 그림자에 해당한다. 완벽한 페르소나를 만들기 위해 그림자를 억압하고 숨기려고만 하면 하이드 같은 괴물 인격이 생겨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그림자를 정성껏 돌보고 그림자와 대화를 시도하는 사람은 오히려 페르소나만 번듯한 사람에 비해 훨씬 성숙하게 자신의 개성을 발전시킬 수

있다.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고 정화시켜 훌륭한 예술 작품을 만드는 대부분의 예술가는 자기 그림자를 성숙한 내면의 에너지로 승화시킨 사람들이다. 베토벤이나 카프카 같은 예술가가 대표적이다. 음악가로서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치명적인 콤플렉스, 즉 그림자를 극복함으로써 베토벤은 누구도 생각해내지 못한 독창적이고 위대한 곡을 완성했다. 카프카의 콤플렉스는 아버지와의 불화였다.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독재적 성향의 아버지 앞에서 카프카는 늘 나약하고, 무능력하고, 탐탁지 않은 아들일 뿐이었다. 그런 악조건 속에서 카프카는 오히려 아버지와 심각한 불화를 <변신>이나 <아버지께 드리는 편지> 같은 독창적인 문학작품을 통해 극복해냈다. 카프카가 만일 자신의 그림자를 외면하기만 했다면 이런 걸작을 쓰지 못했을 것이다. 스스로 아픈 그림자와 끊임없이 대화하고 협상함으로써 예술가들은 마침내 훌륭한 작품을 통해 ‘그림자의 치유’를 경험한다.

아이들에게 바른 생활의 모범이 되기 위해 자신의 그림자를 완벽히 숨기는 선생님이 좋을까, 아니면 가끔은 솔직하게 자신의 그림자도 보여주면서 좀 더 인간적인 소통을 추구하는 선생님이 좋을까. 나는 좀 더 자연스럽게 솔직하게 자신의 그림자와 소통

인간에게는 사회화와 개성화 사이의 균형 감각이 중요하다.

사회와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림자로 대변되는 진정한 내면의 자기와 만나는 작업도

중요하다. 좀 더 아프고 번거로울지라도 불완전한

나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 자신의 그림자와 진정으로

친밀해질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타인의 아픈 그림자마저

존중할 줄 아는 깊고 너른 마음의 주인공이다.

하는 선생님이 정신적으로 더 건강한 상태라고 본다. 그림자를 억압하고 숨기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트레스와 콤플렉스가 더 심화되기 때문이다. 상처는 페르소나로 잠시 숨길 수 있지만, 진짜 트라우마는 마치 상처가 안으로 굽아가듯 더 심각한 내상(內傷)이 될 수 있다. “선생님도 너희가 그렇게 가슴 아픈 말을 하면 상처받는단다”, “선생님도 인간이니까 너희와 똑같이 마음 아프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교사로서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절대 아니다. 오히려 아이들에게 좀 더 친밀하게 다가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말쑥부리는 학생에게도 마치 우리 인격에 그림자 따위는 없는 것처럼 바람직한 페르소나만을 강조하는 것보다 “선생님도 예전에 너 같은 생각을 한 적이 있어”라고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 훨씬 치유적인 가르침이다. 딱 끼는 교복처럼 답답한 교육 방법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선생님 앞에서는 뭐든지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어”라는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도, 선생님 자신에게도 훨씬 훌륭한 교육이다.

페르소나가 사회화와 연결되는 부분이라면, 그림자는 개성화와 연결된다. 우리 사회는 사회화를 지나치게 강조하느라 ‘나답게 되기’,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기’라는 개성화의 과제가 도외시되고 있다. 인간에게는 사회화와 개성화 사이의 균형 감각이 중요하다. 사회와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림자로 대변되는 진정한 내면의 자기와 만나는 작업도 중요하다. 좀 더 아프고 번거로울지라도 불완전한 나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 그리하여 페르소나를 완벽하게 치장함으로써 상처를 숨기는 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림자와 진정으로 친밀해질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타인의 아픈 그림자마저 존중할 줄 아는 깊고 너른 마음의 주인공이다.

내일로 가는 옛길, 우리 고전을 만나다

전주의 대표이미지가 되어버린 한옥마을 한 귀퉁이에는 우리가 무심히 지나쳤던 고즈넉한 한옥 한 채가 숨어있다. 바로 우리 선조들의 정신문화가 담겨 있는 한문 고전을 수집, 정리하고 번역하는 한국고전번역원 부설 고전번역교육원 전주분원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인간의 도리, 삶의 지혜를 우리 고전에서 찾는 이곳의 대문을 조심스레 열어젖히자 행정실의 김기완 행정원이 환한 미소로 방문객들을 맞이했다.



전주분원 행정원
김기완 고전번역교육원





일주일의 시작, 김기완 선생의 월요일 오전은 분주하다. 한문 고전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을 위해 무료로 열고 있는 고전강독이 열리는 날이기 때문이다. 오늘 수업은 함축적·비유적 의미를 품고 있는 <고사성어>다. 오늘 강의를 맡은 이병훈 교수가 일찌감치 도착해 김기완 선생과 오늘 강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오늘은 특별히 <고사성어> 수업 시작 전에 김기완 선생도 강의실에 들어갔다. 참석한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고전번역교육 전주분원에서 우리고전배움터라는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참석자들의 뜨거운 열기는 김기완 선생을 늘 긴장시키면서 동시에 보람을 느끼게 한다. 고전번역교육원에서 하는 중요한 일 중 하나는 바로 고전번역을 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일이다. 정규과정으로 입학전형을 통해 들어온 학생들의 학사 관리는 김기완 선생이 하는 업무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다. 이곳 연수과정을 수석으로 마친 졸업생이기도 한 그는 입학부터 졸업까지 3년 동안 학생들의 모든 일정을 꼼꼼히 관리한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기록유산인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등 다양한 역사문헌과 주요 문집들을 번역해온 이곳에서 김기완 선생 역시 번역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해도 해도 어려운 것이 고전 번역이라고 말하는 그는 여전히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번역위원 선발시험'을 준비 중이다. 우리고전배움터에서 하게 될 <맹자> 강의 또한 그에게는 첫 번째 도전이 될 것이다. 버선코 같은 처마선이 이어지는 기와지붕, 어느 강의실에선가 들려오는 낭랑한 목소리, 아침이슬이 공기 중으로 흩어진 한낮의 잔디밭... 이곳은 김기완 선생에게 일터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힐링의 공간이기도 하다. 선조들의 정신이 담겨 있는 고전 서적을 읽고, 학생들의 반짝이는 열의를 마주대할 때면 이곳이 바로 충만함이고, 평화이다.



연수과정 학생들과의 담소는 김기완 선생에게 가장 즐거운 시간이기도 하다. 공학도 출신으로 한자공부를 시작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굵이굵이 지나왔던 자신의 모습을 종종 학생들을 통해 바라보게 되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배출한 졸업생들이 오랜 공부를 통해 한국고전번역원의 직원이나 역자가 되면 그것처럼 기쁜 일이 없다. 오후 일과 역시 바쁘게 돌아간다. 자신의 일을 도와주는 조교와 함께 오늘 <고사성어> 수업에 참여한 회원 정보를 정리하고 연수과정 학생들의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의논을 한다. 김기완 선생은 우리 고전 번역을 기반으로 더욱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만들어지고 국민 모두가 민족적 자긍심을 더욱 키우길 소망하고 있다. 이곳 고전번역교육원 전주분원이 자신에게 자부심이자 금지인 것처럼 말이다.

걷고 싶은 계절, 걷고 싶은 이색 거리 5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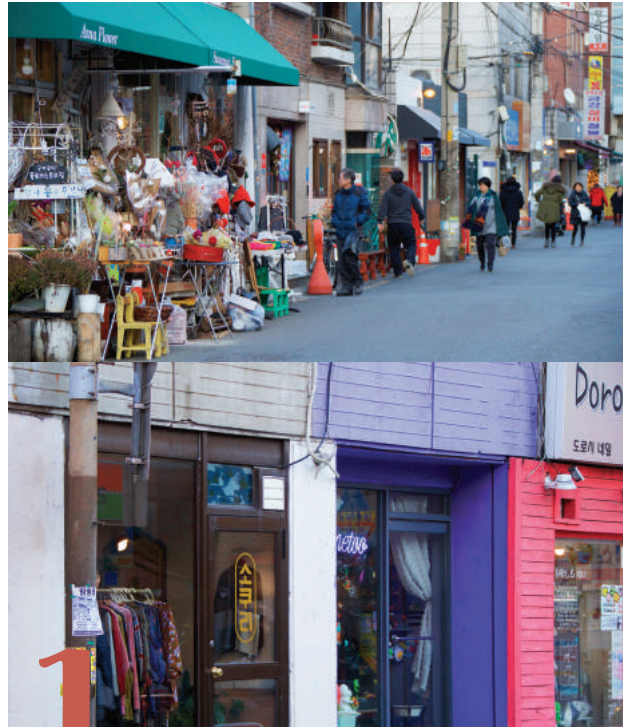
이색적인 멋과 맛으로 중무장한 상점들이 알록달록 가을 단풍처럼 곱게 거리를 물들였다. 예쁜 옷 꺼내 입고 편한 신발 신고서 무한정 걷고 싶은 가을을 맞아 찾고 싶은 전국의 아름다운 거리들을 모았다.

젊은 주인장들의 감각이 반짝이는 곳

서울 망리단길



서울 마포구 망원동. 조선시대 망원정(望遠亭)이라는 정자가 있던 것에서 유래한, 낭만적인 이름을 가진 소박하고 조용한 서민 동네. 그랬던 것이 서울을 대표하는 '젊음의 거리' 홍대 앞이 넓어지면서 근처 연남동, 합정동을 거쳐 이곳 망원동까지 예쁜 카페와 이색 음식점 등이 하나 둘 자리잡기 시작했고 급기야 이태원 근처 경리단의 이름을 패러디해 망리단길이라는 별칭이 붙여졌다. 닭강정, 고로케, 떡볶이와 꼬마김밥 등 만원 한 장이면 호화 뷔페 부럽지 않은 만찬을 즐길 수 있는 망원시장 뒷편, 갈래갈래 펼쳐진 골목길 마디마디에 그림 같은 소품 가게와 카페, 레스토랑이 점점이 박혀 있어 찾는 재미가 쏠쏠하다. 이곳 음식점들은 젊은 사장들의 감각적인 인테리어 솜씨와 개성 넘치는 맛으로 SNS를 강타하고 있다. 미국, 멕시코, 프랑스, 스페인, 중국 등 다국적 전문 음식점들도 곳곳에 포진해있다.



가을 낭만을 만끽하다

제주 애월



나날이 핫해지고 있는 제주에서도 단연 뜨거운 명소가 애월이다. 푸른 바다를 감상하며 아름다운 카페에서 차 한잔 하는 것은 여행자들의 로망이다. 제주 공항에서 서쪽으로 30분 거리에 있는 애월해안도로를 따라 끝없이 펼쳐진 제주 앞바다를 감상하고, 애월한담공원에서 조용한 산책과 바다의 노을을 즐겨보자. <효리네 민박>에서 이효리와 아이유가 일몰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던 장소가 바로 이 애월한담공원. 애월리에서 꼭지리 해안을 따라 나있는 유명한 산책로다. 물론 금강산도 식후경. 애월엔 맛집도 즐비하다. 제주하면 떠오르는 흑돼지를 맛보고 싶다면 '홍돈'에서 윤기 찰찰 흐르는 도톰한 오겹살과 목살을 먹고, 감각적인 인테리어의 맛집을 원한다면 '애월찜(ZZIM)'에서 매콤한 전복낙지 매운갈비찜을 먹어보자. 고소한 딱새우가 먹고 싶다면 동화 같은 인테리어의 카페 '허브팜'에서 딱새우파스타를 맛보자. 바다, 산책, 고요, 낭만... 가을의 시상을 자극하는 모든 것이 애월에 있다.



서울대학교를 상징하는 로고 '샤에 가로수길' 이름을 합성한 샤로수길. 이름대로 지하철 서울대입구역 2번출구 근방에서 시작해 낙성대역까지 이어지는 관악로 14길이 바로 샤로수길이다. 이곳 역시 젊은 사장들의 감각이 돋보이는 이색 가게들이 즐비해 대학생들과 근처 직장인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한동안 인스타그램을 장악한 수제 버거집 '더멜팅팟', 프랑스 유학시절 맛본 홍합스튜 맛이 그리워 직접 차렸다는 주인공의 감각이 돋보이는 '프랑스홍합집', 수준 높은 핸드 드립 커피를 맛볼 수 있는 '카페산다',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레스토랑 '스윗밸런스', 퓨전 오리엔탈 요리와 다양한 아시아 맥주를 구비한 '봉천예술관' 등이 요즘 SNS를 달구고 있다. 이 밖에도 지구촌의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음식점들과 대학생·직장인이 좋아할만한 아기자기한 수제 맥주집, 아이디어 넘치는 메뉴와 인테리어로 무장한 카페들이 속속 문을 열고 있다. 조용한 주택가 봉천동의 오래된 세탁소, 양복점, 연립주택들 사이사이 깜짝 그림처럼 새로운 가게들이 들어서 있는 풍경. 가을 산책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반짝이는 청춘의 아이디어가 모이다

서울 샤로수길



3

천년고도의 멋과 맛

경주 황리단길



천년고도 경주에도 멋쟁이들을 유혹하는 새바람이 불었으니 그 이름은 황리단길. 경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내려 대릉원을 둘러보며 황리단길까지 걷는 코스를 추천한다. 조금만 더 걷다 보면 천마총, 첨성대까지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에 빛나는 천년고도 경주의 멋과 낭만을 만끽할 수 있다. 초록색 둥근 언덕 같은 고분을 바라보며 차 한잔 마시는 것은 오직 황리단길에서만 가능한 경험. 다국적 음식점들도 눈길을 사로잡는다. 한옥에서 즐기는 수제 피자과 맥주가 매력적인 '987 PIZZA&BEER', 루프탑 카페로 전망이 일품인 상그리아 맛집 '카페 오하이' 등이 인기다. 한복을 입고 천년고도를 산책하고 싶다면 한복 대여점 '경주한복판'이 기다리고 있다. 낭만적인 인테리어가 향수를 자극하는 '대릉원흑백사진관', 재기발랄한 아이디어로 책 안 읽는 젊은이들까지 불러 모으는 '어디에나 있는 서점 어디에도 없는 서점' 등도 놓치지 말고 둘러보자. 천년의 고분들과 한옥들, 그리고 아름다운 상점들이 가을의 낭만을 부채질한다.



4

풍류는 역사와 함께 흐른다

전주 객리단길



한옥마을은 너무 많이 가봤다고 외치는 젊은이들이 이제는 객리단길로 몰린다. 한옥마을 근방,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3가 10에 서있는 조선시대 관아, 전주객사 근처로 예쁜 카페와 레스토랑이 모여들면서 '객사'와 '경리단길'을 합해 객리단길이라는 이름이 탄생했다. 한옥마을의 경기전과 전통성당을 거쳐 팔달로를 지나 충경로 사거리까지 산책을 즐기다 보면 길가에 전주객사가 서있다. 본격적인 탐방 전에 수 백년 역사의 향취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객사의 마루에 앉아 잠시 풍류를 즐겨보는 여유를 잊지 말자. 객리단길 역시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다국적 만찬을 즐길 수 있다. 착한 가격의 피자집 '마틸다 피자', 푸짐한 갈비플레이트와 파스타가 맛있다는 '고사동빌리지' 등이 인스타그램을 달군다. 전국 각 지역 막걸리와 파전, 보쌈 등을 즐길 수 있는 '다가양조장'도 인기 주점. 전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리와 '남도의 맛'이 만났으니 그야말로 눈과 입이 호강하는 최고의 여행지로 손색이 없다.



5



호주 속 또 다른 호주를 만나다

남호주 - 캥거루 아일랜드와 애들레이드

남호주는 아직 우리에게 생소한 여행지다. 제대로 된 여행상품조차도 없다. 시드니와 멜버른, 울루루, 퍼스 등 호주의 인기 여행지에 비해 훨씬 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문화에 관심이 많고 동식물 등 자연 환경에 관심이 많은 여행자라면 꼭 한 번 가볼 만한 여행지다. 훌륭한 와인을 맛볼 수 있다는 점도 남호주 여행의 매력이다.





야생의 보고 캥거루 아일랜드

여행자들이 남호주를 찾는 가장 큰 이유는 캥거루 아일랜드 때문이다. 호주에서 세 번째로 큰 섬으로 면적 4,500평방킬로미터에 달한다. 하지만 인구는 5,000명 밖에 되지 않는다.

캥거루 아일랜드의 별명은 '호주의 갈라파고스'다. 캥거루, 코알라, 왈라비 등 다양한 종류의 호주 토종 야생동물이 대거 서식한다. 캥거루 아일랜드에는 21개의 자연 보존 지역과 국립공원이 자리 잡고 있으며 30여 종의 동물과 250여 종의 새, 900여 종의 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바다사자와 펠리컨을 비롯해 뉴질랜드 물개, 야생 코알라, 검은 앵무새 등 다양한 동물이 살아간다. 이 가운데 60종은 오직 캥거루 아일랜드에서만 볼 수 있는 종이라고 한다.

캥거루 아일랜드를 찾은 여행객들이 제일 먼저 달려가는 곳은 플린더즈 체이스 국립공원이다. 야생동물의 낙원으로 불리는 곳으로 캥거루, 코알라, 왈라비 등의 동물이 서식하고 있다.

플린더즈 체이스 국립공원의 또 다른 볼거리는 '리마커블 락'(Remarkable Rock)이다. 멀리서 보면 마치 커다란 투구나 코끼리처럼 보이기도 하는 바위가 바닷가 화강암 암반 위에 우뚝 서 있다. 누군가 일부러 만들어놓은 설치작품처럼 보이는 이 바위는 오랜 세월 거센 파도와 바람이 깎아 만든 것이다. 석양 무렵이 아름다워 호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포토스팟 가운데 한 곳으로 손꼽힌다.

'실 베이'(Seal Bay)는 호주 바다사자의 고향으로 불리는 곳이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야생 상태의 바



2

- 1. 오랜 세월 거센 파도와 바람이 깎아 형성된 '리마커블락'(Remarkable Rock)
- 2. 한낮 여유를 즐기고 있는 캥거루
- 3. 호주 바다사자의 고향으로 불리는 '실 베이'(Seal Bay)



고풍스러운 건물과 현대적인 건물이 조화를 이루는 세련된 애들레이드와 호주의 야생동물들을 관찰할 수 있는 캥거루 아일랜드는 꼭 둘러보자.

다사자를 가까이서 직접 관찰할 수 있다. 수백 마리 바다사자가 바로 눈 앞 해변에서 늘어져 누워 있는 모습이 장관이다.

이 밖에도 '한슨 베이' 보호구역과 '웨스턴 키 카라반' 공원에서는 코알라를, '킹스코트 부두'에서는 펠리컨을, '스톡스 베이'에서는 진홍잉꼬를, '케이프 간디움 보존공원'에서는 백조를 만날 수 있다.

캥거루 아일랜드는 1802년 영국의 전설적인 탐험가 매튜 플린더즈가 처음 발견했다. 주로 호주의 해안과 섬, 오지 등을 여행한 탐험가로 '호주의 리빙스턴'으로 추앙받는 인물이다. 그가 처음으로 이 섬에 도착했을 당시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고 나무를 태워 불을 피운 흔적도 없었다고 한다. 탐험대는 곧바로 캥거루 몇 마리를 잡아 잔치를 벌이고 이 섬을 '캥거루 아일랜드'라 이름 붙였다.

호주 대표 와인을 맛보다

호주는 전 세계 와인의 4%를 생산하고 있으며 세계 와인 수출국 가운데 4위 규모를 자랑한다. 호주 와인의 대표 산지가 바로 남호주다. 호주 와인의 절반을 생산한다. 와인애호가라면 애들레이드 시내에서 자동차로 15분 거리에 자리한 펜폴즈(Penfolds) 와이너리를 지나칠 수는 없는 일. 펜폴즈는 호주의 국보급 와인이다. 호주 와인의 최고봉이라 불리며 세계 100대 와인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1999년에는 와인 전문지인 와인 스펙테이터로부터 그랜지 1955년 빈티지가 '세기의 와인'(wine of the century)에 선정되기도 했다.



3

펜폴즈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와인이 1951년 첫 생산을 시작한 펜폴즈 그랜지다.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인 와인으로 장기 보관성, 응집력, 밸런스 등에서 기존 호주 레드 와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1955년 8월, 와인 평론가 로버트 파커로부터 “그랜지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풍부하고 응집력이 뛰어난 드라이 테이블 와인”이라는 극찬을 받게 된다. 이후 그랜지는 호주 와인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고, 호주 와인의 명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만든다.

여유롭고 고풍스런 도시 애들레이드

남호주 여행의 관문이자 출발점인 애들레이드는 호주의 여러 도시들 가운데 영국의 영향을 유난히 많이 받은 도시다. 1836년에 애들레이드 초대 총독인 힌드마시를 따라 온 270여 명의 영국 이민자가 정착하면서 애들레이드의 역사가 시작됐다.

애들레이드는 영국 정부가 자유 이민을 목적으로 만든 계획도시로 도시가 성장한 후에 정비를 다시 하지 않아도 되도록 처음부터 계획했기 때문에 지도를 보면 도시가 직사각형으로 재단되어 있다. 도시는 토렌스강에 의해 남북으로 나뉘는데, 이 강변을 따라 산책로가 이어진다. 산책로를 따라 가며 감상하는 애들레이드의 풍경은 평화롭고 차분하다. 젊은 연인들은 데이트를 즐기고 자전거를 탄

아이들이 웃음소리와 함께 달려간다. 잔디밭에 누워 책을 읽는 사람들의 표정에서는 여유가 넘친다. 도시 곳곳에 자리한 울창한 숲도 이런 평화로운 분위기를 돋우는데 한몫 한다.

강변을 따라가는 세그웨이 투어를 해볼 만 하다. 세그웨이 사용법에 대한 간단한 교육을 받고 1시간가량 도심투어를 한다. 세그웨이를 타고 가다보면 커다란 건물이 눈길을 끄는데, 바로 페스티벌센터다. 1960년부터 짝수 해마다 열리는 세계적인 종합예술제인 ‘애들레이드 아트 페스티벌’이 이곳에서 열린다. 애들레이드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축제의 도시로 1년 내내 축제들이 끊이지 않는다.

애들레이드 여행의 출발점은 빅토리아 광장이다. 빅토리아 광장과 글레넬그 비치로 왕복하는 트램의 출발점이기도 한데, 근처에 시청, 우체국, 대법원, 버스터미널 등이 모여 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버스인 ‘비 라인’과 주요 시내버스도 이곳을 경유한다. 광장 앞으로 노스테라스 거리가 이어진다. 애들레이드 대학과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대학 등이 모여 있는 대학가인데 남호주 아트 갤러리, 남호주 박물관, 보태닉 가든 등도 자리하고 있어 고풍스럽고 우아한 분위기를 즐길 수 있다.

노스테라스 거리를 지나면 런들스트리트다. 애들레이드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다. 레스토랑과 바, 선물 가게, 쇼핑몰 등이 모여 있다. 런들 스트리트를 건다





‘런들 스트리트(Rundle Street)’는 애들레이드에서 가장 변화한 거리다.

보면 커다란 초콜릿 가게인 ‘헤이그 초콜릿’(Haigh’s Chocolates)을 발견할 수 있는데 꼭 한 번 들어가보시길. 벨기에의 고디바처럼 호주를 대표하는 초콜릿이자 호주에서 가장 오래된 수제 초콜릿 가게다. 애들레이드 뿐만 아니라 호주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세계 10대 초콜릿에도 당당히 선정되었다.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시장 구경을 빼놓을 수 없는 법. 센트럴 마켓은 14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남호주의 대표 시장이다. 남호주에서는 생산되는 신선한 과일과 야채, 고기, 치즈, 해산물 등 풍부한 식재료를 접해볼 수 있어 현지인과 관광객으로 늘 붐빈다. 시장 한 쪽에 80개가 넘는 음식점이 즐지어 늘어난 먹자골목도 있어 여행자를 행복하게 한다. 호주 음식을 비롯해 스페인, 태국, 이탈리아, 터키 등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맛보며 기분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여행정보



인천국제공항에서 캐세이퍼시픽항공을 이용해 홍콩을 거쳐 애들레이드 공항으로 들어가는 것이 제일 빠르다. 애들레이드 시내에 크라운 프라자 호텔을 비롯해 호텔이 많이 있다. 애들레이드 보타닉 가든 레스토랑(www.botanicgardensrestaurant.com.au)은 보타닉 가든 내에 자리하고 있다. 와인과 함께 다양한 호주 요리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다렌버그 와인(www.darenberg.com.au)에서는 남호주 와인 시음 뿐만 아니라 직접 블렌딩 해보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펜폴즈 맥길 에스테이트(www.penfolds.com)는 미리 예약하면 편하다. 애들레이드에서 캔거루 아일랜드까지는 배로 1시간 가까이 걸린다. 시링크(www.sealink.com.au)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캔거루 아일랜드에는 아담한 호텔과 산장이 많다. 머큐어캔거루아일랜드리지(www.kilodge.com.au)는 항구와 킹스 코트 공항에서 30분 거리. 선셋푸드&와인(www.sunsetfoodandwine.com)은 캔거루 아일랜드의 해산물과 와인으로 멋진 코스 요리를 선보인다.





박한별
건국대 교직원이
추천하는

건국대학교 주변 핫플레이스

서울의 대표적 변화가인 건대입구역 일대는 젊은이의 거리라 불릴 만큼 20~30대 유동인구 층이 많은 곳으로 늘 시끌벅적 인파로 북적인다. 독특한 콘셉트의 피자, 파스타, 술집 등의 맛집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도 유명한 이곳, 그 가운데서도 학생들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핫플레이스를 박한별 건국대 교직원이 소개한다.



A 이자카야 규

공장에서 제조된 것 같은 인공조미료 맛 요리는 이제 그만. 손맛이 느껴지는 최고의 요리를 맛 볼 수 있는 이자카야 규가 있다. 다양한 메뉴들이 하나같이 맛있고 실속있다. 상호명이 왜 '규'인지는 방문해보면 확인할 수 있다.



B 엘리펀트

최근 전국적으로 루프탑 카페가 대세다. 건대 엘리펀트 루프탑 카페도 사진 찍기 좋아하고, 분위기 좋은 카페를 찾는 젊은이들의 발걸음이 끊없이 이어진다. 이국적 분위기에서 색다른 상상을 하기 좋은 곳이다.



C 호아

건대 맛집의 대명사이자 가성비 최고의 초밥 맛집.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 2호점까지 개업했지만 거의 매일같이 문전성시를 이룬다. 연어 사시미, 연어 초밥을 비롯한 연어 메뉴가 인기다.

D 커먼그라운드

건대 인근 젊은이들이 모두 모인다는 대표적인 건대 핫플레이스. 패션, 맛집, 전시 모든 것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컨테이너형 문화공간이다. 2층에 위치한 '더부스'에서 피자 와 맥주를 즐기면서 시원한 밤공기를 느낄 수 있다.



E 고흥순대국

할머니순대국과 쌍벽을 이루는 건대 인근 순대국 명가. 깔끔한 맛으로 소문이 나서 바로 맞은편에 2호점이 있지만, 식사 시간이면 어느 쪽이든 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인기가 많다.



F 청춘뜨락

청춘뜨락은 원래 건대입구역 인근에 오랫동안 방치돼 온 공터였다. 지난 2015년 '청춘뜨락'이라는 이름의 야외공연장으로 탈바꿈한 이곳은 서울의 새로운 버스킹 명소로 자리 잡았다. 매일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만날 수 있는 곳이다.



맛과 멋과 열정의 거리, 건대입구



✉ 나만의 핫플레이스를 추천해주세요.

독자 여러분이 자랑하고픈 곳이 있으신가요? <The-K 매거진>에 자신이 근무하는 곳, 살고 있는 곳 주변의 '나만의 핫플레이스'를 추천해주세요. 숨은 맛집, 가고픈 카페, 그윽한 풍경, 떠들썩한 유흥지, 머물고픈 공간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성함, 연락처, 추천 장소와 이유를 간략히 작성해 보내주시면 선정된 분께 <The-K 매거진>이 원고 의뢰를 연락드립니다. 원고 게재 시 소정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The-K 매거진> 편집실 E-mail. leemj@swadcom.co.kr



㉔ 모모스테이크
삼겹살 스테이크, 토핑 스테이크 등 색다른 스테이크를 맛 볼 수 있는 맛집. 한 입 크기여서 먹기에도 편리하고, 손바닥 크기의 바삭한 피자도 있어 함께 맛 볼 수 있다.



㉕ 카레대장
건대 학생 및 인근 직장인들이 자주 찾는 맛집에 도전장을 낸 카레 전문점. 짙은 맛에 밥과 카레까지 무한리필이라고 하니 맛과 양 모두 걱정할 일이 없다.

㉖ 가츠시
훌륭한 맛에 엄청난 양까지 자랑하는 건대 후문 대표 맛집. 소비정식을 주문하면 돈가스 1인분에 무려 메밀 2판이 등장한다.



노년층부터 젊은층까지, 우리 모두에게 켜진 '녹내장' 경고등

최근 녹내장 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 결과, 2010년 44만명에서 2015년에는 76만명으로 5년간 73%나 증가했다. 특히 불규칙적인 식습관과 IT 기기 사용을 즐기는 20대와 30대 환자의 비율이 각각 48%, 57%로 늘었다는 놀라운 보고 결과가 나왔다.

녹내장, 비만이면 발병 확률 높아져

안압은 11~15mmHg이면 정상, 16~20mmHg 사이면 위험, 21mmHg 이상이면 녹내장이 발병할 소지가 높다. 녹내장은 높은 안압으로 시신경이 눌리고 안구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시야 장애가 오고 심하면 실명에 이르는 병이다.

그런데 복부 비만이 있을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안압이 높다. 부산대병원 안과 연구에 따르면, 20~70대 성인 남녀 6,169명을 대상으로 안압을 측정해 각종 건강지수(신장, 체중 및 비만도, 허리둘레, 체지방률, 체질량지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보니, 허리둘레와 안압이 관련 있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허리둘레가 100cm 이상일 때 평균 안압이 15.23mmHg로 60cm 미만일 때의 12mmHg과 큰 차이를 보였다.

체지방률의 차이도 안압에 영향을 줬다. 체지방률 10% 미만인 사람의 평균 안압은 남성 12.68mmHg, 여성 9mmHg인데 반해 30~39%대인 사람은 남성 14.46mmHg, 여성 14mmHg로 나타났다. 체지방률이 40% 이상인 여성은 평균 안압이 15.05mmHg이었다. 체질량지수(BMI)가 높거나 비만도가 110%를 넘었을 때도 남녀 모두 안압이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압은 1mmHg 낮아지는 것만으로도 녹내장 진행 속도를 10% 늦출 만큼, 작은 변화로도 녹내장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홀히 하다 녹내장 키워

녹내장은 안압(眼壓)이 높아지면서 시신경이 압박을 받아 신경세포가 손상되거나,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등의 이유로 나타난다. 초기에는 통증·시야 장애 같은 증상이 거의 없어, 환자의 상당수는 병이 심해질 때까지 눈치 채지 못한다. 한국녹내장학회 조사에 따르면, 40세 이상 1만3,831명을 분석했더니, 710명의 녹내장 환자 중 9%(63명)만 자신이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옆에 아홉은 모르고 지냈다는 얘기다. 특별한 증상이 없어 노안이나 안구건조증인 줄 알고 병원을 찾았다가 녹내장을 진단받는 경우가 꽤 있다.

특히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정기적인 검진이 최선이다. 고위험군은 녹내장 가족력, 40대 이후, 고도 근시자, 고혈압과 당뇨병, 스테로이드 약물 장기 복용, 비만 등이다.

녹내장은 초기에 발견되면 안압을 낮춰주는 약물을 먹는 등 간단한 시술로도 치료할 수 있다. 하지만 말기 녹내장은 망막과 공막 사이를 뚫어주는 수술을 해야 하는 등 치료가 까다롭다. 수술 후 완치율도 떨어진다. 이에 안과 정기검진을 통해 빨리 병을 발견하고 나서 적절한 치료를 통해 병의 진행을 늦추는 것이 최선이다. 사물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거나 자주 침침해지는 등 증상이 생겨 병원을 찾으면 병이 이미 진행된 경우가 많다. 눈에 증상이 없더라도 40세가 넘었다면 1년에 한 번씩 안과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특히 당뇨병 환자는 눈에 아무 문제가 없더라도 연령에 상관없이 6개월에 한 번씩 검진을 받아 합병증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녹내장 미리미리 예방하려면

녹내장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는 눈의 노화를 늦추고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는 생활습관을 지켜야 한다. 책·모니터·스마트폰 글자를 눈 가까이서 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안압을 높이는 요인인 흡연·음주를 자제해야 한다. 당뇨병이 있다면 혈당 수치가 높아지지 않게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 일주일에 3~5회, 30분~1시간 정도의 운동과 저지방·저열량 식습관으로 적정 혈압·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비타민A·C·E, 루테인 등의 영양소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다. 이런 성분은 시금치, 브로콜리 등 녹색 채소에 많이 들었다. 옆드린 자세로 자면 안압이 높아져 천장을 보고 누울 때보다 녹내장 발병 위험이 커진다. 눕는 자세를 취하면 머리가 심장보다 낮아져 경정맥(목혈관)의 혈압이 높아진다. 이 때문에 앉아있을 때보다 안압이 상승한다.

녹내장 고위험군은 수면 자세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 있으면 옆으로 누워 자는 것을 권장하는데, 이런 사람은 베개로 머리 높이가 척추와 일직선이 되도록 하면 추가적 안압 상승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카페인 음료가 녹내장을 유발할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다. 눈 속을 채우는 액체인 방수의 양이 늘어나면 안압이 높아지는데, 방수는 눈 속 혈관에서 만들어진다. 카페인 때문에 눈 속 혈압이 높아지면서 방수 생성이 촉진돼 안압이 높아진다. 녹내장 위험 그룹은 카페인 과다 함유 섭취를 자제해야 한다.



신혼부부의 재테크 전략

‘돈이 새고 있다’는 말을 밥 먹듯이 하는 30대 신혼부부가 늘고 있다. 가장 행복해야 할 신혼 기간에 돈 문제로 고통받지 않으려면, 하루빨리 재테크 전략을 세워야 한다.

봄과 가을은 결혼시즌이다. 무더위와 추위를 피해 시원한 날씨를 하객삼아 축복의 첫 걸음을 내딛는 신혼이야말로 인생의 꽃봉오리다. 아름다운 꽃처럼 활짝 피어오르는 행복한 삶을 위한 인생설계의 시기이기도 하다. 신혼 초에는 자칫 달콤함에 취해 데이트 때와 비슷한 소비 성향을 갖기 쉽다. 외식하고 여행가고 물건을 구입하는 일상의 소소한 것들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하면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져 자칫 빚으로 메워나가는 마이너스 굴레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에는 미래 인생 비전을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그에 따른 단기와 장기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필자 또한 결혼하자마자 인생 3단계 장기플랜을 계획하였다. 45세까지는 목돈마련기로 수입의 70% 이상을 투자해 나가는 것으로 목표를 세웠다. 55세까지는 가족들과 함께 좀 더 여유로움을 누리고 56세부터는 주위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과 봉사의 시기로 정했다.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목돈마련이 중요하다. 예금자 보호법을 적용받는 5,000만원 이하 금액으로 저축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와 같은 모바일 은행 예·적금 상품을 활용하면 된다. 매달 부부가 열심히 돈을 모아 100만원만 적금을 해도 이자를 제하고 연간 1,200만원이 쌓여 나간다. 이는 기준금리 1.25% 기준 약 10억의 예금 이자와 비슷한 수익률이다. 이렇게 마련한 목돈은 그동안 준비한 청약통장을 활용하여 비교적 저렴한 공공아파트 분양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주식 및 펀드 등 좀 더 수익률 높은 상품에 투자하여 저금리 시대를 극복하면 된다. 물론, 부동산은 입지분석, 주식은 기업분석을 하기 위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수다. 즉, 안정성에서 수익성으로 갈아타는 순간 리스크와 책임은 무한대로 커진다. 이제 신혼 초 재테크 전략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지출을 통제해야 한다
지출은 곧 절약과 인내다

절약을 위한 방법은 매우 다양하지만 필자는 **‘삼십오 법칙’**을 만들어 지키고 있다. **‘삼’**은 물건 구입 때 세 번 이상 생각하여 불필요한 소비를 막자는 것이다. 생활필수품은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지만 전자제품이나 자동차와 같은 고가 제품은 큰돈이 들어가기에 교체 주기가 잦을 경우 목돈마련 기간이 점점 늦춰진다. 자동차의 경우 충분히 타고 다닐 수 있는 수준임에도 3년에서 5년마다 교체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필자도 결혼 전 구입한 차가 벌써 16년을 넘기고 있다. **‘십’**은 구매하기로 결심한 제품은 가격 대비 질 좋은 상품으로 구입하고 한번 구입한 제품은 10년 이상 사용하는 것이다. 관리만 잘하면 TV나 세탁기, 냉장고는 충분히 10년 이상 사용가능하다. **‘오’**는 물건을 구입할 때 최소 다섯 곳 이상 비교 검색하는 것으로 주로 생활필수품이 해당된다. 쌀이나 옷을 사더라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가격이 다르고 인터넷 쇼핑물 마다 가격 차이가 난다. 티끌모아 태산이다. 반복적인 작은 차이가 점점 큰 액수로 불어나고 이는 다시 수익률의 차이로 확대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2 꼭 필요한 보험을
저렴하게 가입하는 것이다

수입대비 놀라울 정도의 많은 보험을 중복해서 가입하는 선생님들이 많다. 대부분 젊은 시절 친인척이나 지인들의 권유에 못 이겨 가입한 것이 문제다. 보험은 급작스런 사망, 질병, 손해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며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기에 자금을 늘려나가는 재테크와는 구별된다. 그래서 보험은 철저한 가계 재무설계를 바탕으로 꼭 필요한 보험만 최소로 들어야 한다. 보험종류와 납입금이 많을수록 노후를 위한 투자 자금이 줄기 때문이다. 특히 보험은 장기상품으로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해약, 중도인출, 보험료 추가납입 사유 발생 시 많은 비용과 수수료가 부과된다. 저축성 보험의 경우에도 사업비로 인한 원금손실을 각오해야 한다. 보험은 자신에게 맞는 저렴한 맞춤형 상품을 골라 실손 위주의 보수적 시각으로 접근하면 된다. 교직원의 경우에는 낮은 사업비로 보험료가 저렴하고 비갱신형으로 교육직업에 특화된 교직원공제회 보험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3 내집 마련
준비가 먼저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하루라도 빨리 가입해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저축상품에 비해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지고 금리도 다소 높다.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의 주요내용 중 하나가 청약가점제를 확대 시행한다는 것이다.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면적 85㎡ 이하는 100%, 85㎡ 초과는 절반이 가점제가 적용된다. 가점제란 민간분양 아파트 청약 때 1순위의 경우 무주택 기간(최고 32점), 부양가족 수(최고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고 17점)을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하는 것이다. 신혼 때는 아무리 빨리 가입하더라도 통장가입기간이 짧고 여유자금이 없어 사실상 당첨이 어려워 가점을 높여나가며 청약 및 분양 준비를 해나가는 시기라고 보면 된다. 그럼에도 여유자금이 있고 내집 마련을 앞당기고 싶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눈여겨보자. 전용면적 85㎡이하 분양 및 임대주택에 대해 10%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하는 제도다. 청약저축에 가입 후 6개월 경과자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도 가능하다.

최지만
부천 석천초 교사. 개인 투자자로 KBS <아침마당>, MBC <경제매거진>, EBS <부모광장> 등 20여회 방송 출연을 했다. 국무총리·교육부장관·경기도지사 교육감 표창을 받았다. <한국교육신문>에 2015~2016년 경제 칼럼을 기고하였다.



4

신혼의 경우 퇴직이 먼 미래라고 생각해 자칫 노후 준비에 소홀할 수 있다

단기 목표자금 이외에 장기적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다 행히 교직원의 경우 한국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상품이란 좋은 제도가 있다. 600원을 한 구좌로 최대 1,000구좌, 60만원까지 가입 가능하다. 부부교사의 경우 별도로 가입할 경우 120만원이라는 큰돈을 노후준비금으로 적립해 나갈 수 있다. 기준금리 1.25% 대비 연복리 3.6%(변동금리)의 높은 금리를 적용받고 보수, 수수료, 사업비 등이 없어 다른 금융권 장기 저축상품보다 수익성이 월등히 높다. 60만원을 30년 납입으로 수령액을 예상 조회하면 원금이 2억1,600만원이고 이자가 1억6,912만8,000원이다. 세금 511만3,440원을 공제하더라도 총 수령액이 3억8,001만4,560원으로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부부 교직원 모두 가입한도까지 납부를 한다고 하면 거의 8억원 내외의 노후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장기적인 금리인상분을 적용할 경우 수령액은 더욱 늘어난다. 신혼 교직원의 경우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에 더해 장기저축급여까지 갖추어 놓는다면 노후에 대한 시름을 조금은 덜 수 있으리라 본다.

정리하면 결혼 초 가족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부부가 머리를 맞대고 인생 목표와 재테크 전략을 협의해야 한다. 10년까지는 원금보장이 이루어지는 저축위주의 상품에 주력하고 종자돈이 모아진 후에 내집 마련, 증권과 같은 좀 더 높은 투자적 수익률로 접근하면 된다. 아직 젊기에 어떻게 펼쳐질지도 모를 미래를 벌써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빠르면 빠를수록 유리하다. 언제 수입이 끊어지고 직업을 잃을지 모를 불확실성의 시대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일은 절대 하지 말자.



신혼부부가 꼭 알아둬야 할 교직원공제회 혜택



행복누리 결혼대여

'The-K 복지누리대여' 중 '행복누리 결혼대여'는 연 2.99%(변동금리)의 이율로 최고 3,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다. 회원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예정)일 전후 6개월 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회원 1인당 한 번씩만 신청할 수 있다. 부부 회원인 경우 각각 신청 가능하며, 상환기간은 최대 10년이다. 교직원공제회의 대여제도를 한 번도 이용한 적 없다면 '미소누리 최초대여'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 및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회원 예식장 무료 이용 및 할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전북 등 전국 주요 지역의 교직원공제회관에는 회원을 위한 예식장이 마련돼 있다. 회원 본인 및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결혼 시 공제회관의 예식장과 폐백실을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또한 The-K호텔서울을 포함한 출차호텔에서는 회원을 위한 웨딩 할인 프로모션을 수시로 진행하므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라면 꼼꼼히 확인해볼 만하다.



결혼기념품 제공

교직원공제회 가입기간 중 결혼한 회원은 특별한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에게 필요할 법한 물품을 매년 선호도조사를 통해 선정, 결혼기념품으로 지급하기 때문이다. 올해는 진공청소기, 핸드블렌더, 침구청소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부부 회원은 각각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출산축하금과 희망누리 출산대여

'출산축하금'과 '희망누리 출산대여'도 빼놓을 수 없는 혜택이다. 회원 본인 및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첫째와 둘째아이는 10만원, 셋째 이상부터는 30만원의 축하금을 지급한다. 또 본인 및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입양한지 3년 이내인 회원은 '희망누리 출산대여'를 이용할 수 있다. '행복누리 결혼대여'와 마찬가지로 이율은 연 2.99%(변동금리)이며, 자녀 1인당 1,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신한교직원복지카드 이용 회원은 교직원 결혼복지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스·드·매'를 비롯해 혼수와 예단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스마트폰으로 '올댓웨딩' 앱 설치 후 전화(1833-7421)로 이용 신청할 수 있다.



**“앞으로도 회원들이
다양한 혜택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많은 기회를 제공해주길 기대합니다.”**

이승복기념관
•
**안희관
청원경찰**
(61세)



저는 1982년 11월 18일에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35년 동안 복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 말이면 이제 저도 정년퇴직을 합니다. 새로운 인생의 막을 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제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것 바로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1984년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처음 가입했습니다. 가입할 당시만 해도 경제적 여건이 여의치 않았지만, 부담 없는 납입금으로 미래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에 매월 꾸준히 납입금을 냈습니다. 덕분에 현재는 노후를 설계할 수 있는 목돈을 만들어 이에 대한 걱정을 한시름 놓았습니다. 특히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으로서 다양한 복지혜택을 저렴하고 편리하게 누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INTERVIEW

**“언제나 회원들을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든든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교육청 총무과에서 근무하는 김진만 주무관입니다. 작년 9월 본청 전입과 동시에 와이프가 임신을 했고, 올해 5월 첫째 태울이가 태어나서 어느 때보다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내와 결혼을 했을 때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결혼을 축하하는 기념품을 선물해 주었죠. 그리고 우리 아들 태울이가 태어났을 때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출산축하금으로 축하해줬습니다. 덕분에 그날의 기쁨이 더 큰 행복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또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적어도 우리 가족과 함께라면 언제나 즐거운 일이 가득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한국교직원공제회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이뤘다가면 좋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
김진만 주무관
(33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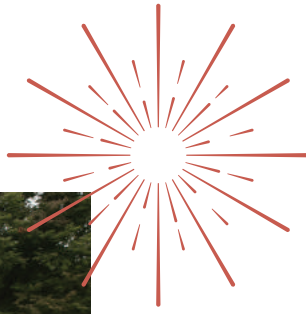
가을밤을 수놓은 고품격 음악의 세계로

'The-K한국교직원공제회 파크콘서트'가 지난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서울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에서 펼쳐졌다. 이번 파크콘서트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메인 협찬사로서 공제회원 총 1,300명을 초청해 회원들이 가족, 친구들과 야외 잔디마당에서 고품격 공연을 감상하는 자리였다. 아름답고 환상적인 음악은 모든 관객을 초가를 정취에 흠뻑 빠지게 만들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파크콘서트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야외 클래식 음악축제다. 2010년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시작으로 조수미, 정명훈, 리처드 용재 오닐, 유키 구라모토, 이루마 등 세계적인 연주자가 함께해오며 가을을 대표하는 음악 페스티벌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파크콘서트는 '장사익 파크콘서트'와 '디즈니 인 콘서트'로 이틀에 걸쳐 각각 진행됐다.

첫날 '장사익파크콘서트'는 장사익과 장사익 소리판, 아르스 팝스 오케스트라(지휘 최선용)가 무대에 올라 우리 고유의 가락은 물론 '쫄레꽃', '봄날은 간다' 등 대표곡들을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선보였다. 둘째 날에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유명 OST가 오리지널 가수들의 공연으로 꾸며졌다. 겨울 왕국의 'Let it Go', 미녀와 야수의 'Beauty and the





한국교직원공제회 문화복지팀 김흥진 팀장

2011년 이래 회원을 위한 The-K행복서비스 중 가장 큰 규모의 외부 행사이다 보니 날씨와 공연장 여건 등 걱정이 많았는데 공연에 집중하고 만족해하시는 회원님들의 모습에 큰 보람을 느꼈어요. 앞으로도 회원의 다양한 문화적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The-K호텔서울 홍보기획팀 김선민 팀장

The-K호텔서울에서는 홍보 리플렛을 배포하면서 저희 객실 이용권, 뷔페 이용권, 휘트니스&사우나권, 롤케이크, 봉지쿠키 등을 준비했는데요. 생각보다 참여인원이 많았고, 다들 다트를 잘하셔서 일찍 모든 경품이 동났습니다. 공연 전부터 많은 분들이 홍보부스를 통해 즐거움을 느끼신 것 같아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신서희, 유의성 참가자

데이트 삼아 '디즈니 인 콘서트'를 찾았습니다. 저희는 아이가 없지만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도 많아서 가족 단위로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운이 좋지는 않아서 경품을 많이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인형과 에코백을 받아서 기분이 좋네요.

Beast' 등이 연주되어 가족, 연인, 친구 모두를 환상의 세계로 빠져들게 했다.

즐거운 게임에, 기분 좋은 상품은 덤

한편,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교직원들을 위해 마련된 부스행사도 성황리에 치러졌다. 부스행사에서 가장 앞쪽에 위치한 교직원공제회 홍보 부스에서는 총 7개의 부스 중 4개 이상의 부스 스탬프를 받으면 스크래치 복권을 증정해 스피커, 텀블러, 쿠션담요 등의 경품을 증정했으며, 교직원공제회와 페이스북 친구를 맺으면 페이스페인팅을 해주기도 했다.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 부스에서는 투호놀이, 고리던지기 체험을 통해 숙박권과 석식뷔페권 등을 증정했고, The-K호텔서울 부스에서는 다트게임

에 참여하면 숙박권, 뷔페권 등 호텔이용권을 선물하는 행사를 열었다. 공제회보험인 '교직원라이프' 부스에는 열기구 앞에서 찍은 인증샷을 보여주고 디즈니인형, 트라이탄보틀, 양말세트를 경품으로 받으려는 교직원들이 길게 줄을 서고 있었다. 공제회원에게는 조건 없이 에코백을 선물하기도 하고 The-K손해보험 부스에서는 롤랫을 돌려 캠핑매트, 부채 등을 증정하는 행사도 열렸다. The-K소피아그린 부스에서도 골프퍼팅에 성공하면 골프선물세트, 골프양말을 증정하며 많은 관객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번 'The-K한국교직원공제회 파크콘서트' 이벤트에 당첨된 교직원들은 추억에 남을 콘서트를 관람한 것은 물론 다양한 행사와 게임으로 양손 가득 행운을 안고 돌아왔다.



‘자연이 주는 선물’ 지리산 가을 단풍맞이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여름의 찬란한 햇살에 바란 길거리의 나무들은 서서히 초록 옷을 벗을 준비를 하고 있다. 바야흐로 단풍의 계절이 돌아왔다. 가을이 물들어가고 있는 지리산 자락 아래 The-K지리산가족호텔이 가을 여행객을 맞을 준비에 나섰다.

The-K 지리산가족호텔





가을이 내려앉은 지리산

길가에 코스모스가 바람에 살랑이며 가을을 재촉하고 노랑 들국화가 화려한 자태를 뽐내는 가을, 산행과 여행의 계절이다. 이맘때 단풍을 만끽하고픈 트래커들은 주저 없이 지리산으로 향한다. 전남 구례군과 전북 남원시, 그리고 경남 함양군 등에 걸쳐 있는 민족의 영산(靈山) 지리산은 우리나라 국립공원 제1호로 지정되었다. 둘레만도 300여 킬로미터에 달하고 1억 3천만 평의 넓이를 차지해 그 크기만큼이나 풍부한 역사와 자연자원을 간직하고 있다. 우리 국토의 근간을 이루는 백두대간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기도 해서 종주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지리산은 사시사철 아름답지만 그 중에서도 가을의 모습은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는 경치를 자랑한다. 가을 문턱에 서면 지리산 화엄사와 천은사, 뱀사골, 피아골계곡을 곱게 물들이는 단풍들이 여행객을 맞이한다.

“피아골 단풍을 보지 않은 사람은 단풍을 보았다고 말할 수 없다.” 조선 시대 유학자 조식 선생이 한 말이다. 지리산 피아골은 옛부터 삼홍의 명승지라 일컬어 왔던 곳으로 매년 가을 많은 등산객들이 찾고 있다. 뱀사골계곡 역시 지리산하면 빼놓을 수 없는 단풍명소다. 깊은 산속에서 흘러나오는 맑은 물줄기가 주변의 울긋불긋한 단풍과 어우러져 그만이다.

단풍 여행객을 위한 안성맞춤 호텔

서울, 경주, 설악에 이어서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개관한 The-K지리산가족호텔은 전남 구례에 위치해 지리산의 단풍을 즐기기에 손색없는 장소다. 연곡사를 지나 직전마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연주담, 통일소, 삼홍소까지 1시간 정도 걸리는 길 위에서 단풍의 환상적인 절경들을 모두 감상할 수 있다.

단풍구경을 마쳤다면 지친 몸을 온천으로 풀어줄 차례다. 구례 온천 특구에 위치한 The-K지리산가족호텔에는 건강을 챙기고 피로도 풀며 여행의 참맛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온천이 있어 단풍놀이와 온천욕을 함께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The-K지리산가족호텔의 천연 게르마늄 성분이 함유된 온천수는 인체의 자연 치유력을 증강시켜 각종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탁월하며 피로회복과 스트레스 해소 등에 효험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등산 및 단풍놀이, 온천욕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가을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10월 15일부터 12월 12일(월~목에 한함)까지 The-K지리산가족호텔에서 진행되는 가을 패키지에 주목해볼 만하다. 객실 1박, 조식 2인, 온천 2인 이용권과 산수유술 1병, 예약자의 이름을 각인한 술 1병을 제공하며 가격은 17평 기준 8만9,000원(공제회원가)이다.

지역민과 함께 키우는 꿈

The-K지리산가족호텔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산품을 활용하여 농가와 연계, 산수유 관련 상품을 판매한다.

호텔 내 토산품 코너에 건산수유 등 약 10가지의 지역 농산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추석 연휴를 맞아 산수유 진액 등 산수유 관련 한가위 선물 세트를 만나볼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도 눈에 띈다. 직원 봉사단을 조직하여 환경미화, 노인돌봄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문화생활이 낙후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문화활동도 선보인다.

최근에는 약 30여개의 기업체 및 지역 단체와 제휴를 맺어 다양한 기업의 직원 휴양소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전북지역 여러 복지재단과 업무제휴를 맺어 요양원의 환우와 가족들의 지친 몸과 마음이 쉬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만물의 생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지리산처럼 지역민들과의 상생을 실천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The-K지리산가족호텔은 여행객에게도 지역민에게도 고즈넉한 쉼터가 되어주고 있다.



The-K지리산가족호텔

- 📍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지리산온천로 317
- ☎ 061-783-8100
- 🌐 thek-hotel.co.kr

The·K 지리산가족호텔
다양한 휴양시설



객실

134실의 다양한 콘도형 객실은 편안한 분위기로 내 집 같은 아늑함과 즐거운 휴식공간을 제공하며, 계절에 따라 변하는 지리산의 비경을 감상할 수 있다.
17평/20평/23평/38평

연회장&웨딩홀

중 소 규모의 각종 세미나 홀은 물론, 대규모 기업체 연수를 위한 대형 홀과 아름다운 웨딩홀까지 첨단 시설을 완비하고 있다.

카페테리아

정갈한 정통한식의 진수를 고스란히 즐길 수 있는 대식당으로 단체 이용객도 편안한 식사를 즐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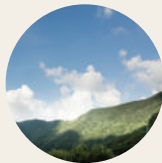
온천사우나

온천욕을 즐길 수 있는 사우나는 게르마늄과 탄산나트륨이 다량 함유된 유황천이다. 야외노천탕 시설까지 갖추고 있으며 사계절 이용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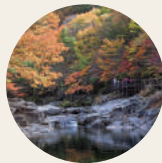
The·K 지리산가족호텔
인근 추천 관광지



화엄사
약 20km(구례군 마산면)
지리산의 대표 사찰



성심재(노고단)
약 23km(구례군 산동면)
차로 접근 가능한 지리산



뱀사골계곡
약 35km(남원시 산내면)
골짜기가 뱀처럼 휘어진 계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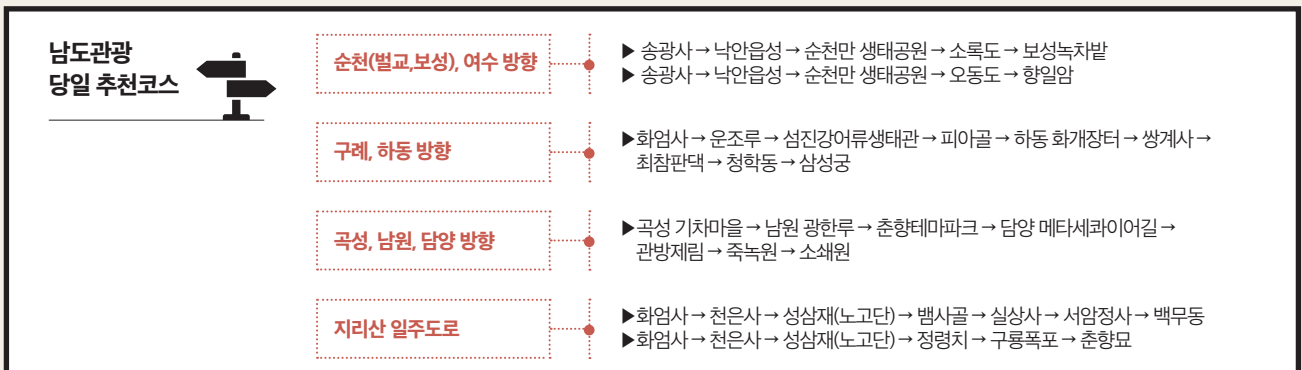
피아골계곡
약 37km(구례군 토지면)
단풍으로 유명한 지리산 대표 계곡



구례 사성암
약 25km(구례군 문척면)
오산 정상 절벽에 위치 구례전경 관람



섬진강 기차마을
약 23km(곡성군 오곡면)
옛 증기기관차와 레일바이크를 타고 섬진강변을 볼 수 있는 곳





‘한국기금·자산운용 대상’ 최우수상 수상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지난 1일 ‘제4회 한국기금·자산운용 대상’에서 공제회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하는 한국기금·자산운용 대상은 공제회·보험사·대학 등 투자기관의 자산운용 성과와 건전성 등을 평가하며, 교직원공제회는 이번 수상으로 총 3회 수상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공제회 부문 평가는 교직원공제회를 포함해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성·정량평가로 나눠 진행됐다. 정량평가는 수익성·건전성·자산부채 종합관리 등을, 정성평가는 운용체계·위험관리·성과관리 등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특히 올해는 외부 위험에 대한 대응계획과 부실자산 처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심사했다. 교직원공제회는 리스크 관리 체계 등 투자의 기본기 강화 노력이 돋보인다는 평을 받았다. 브렉시트, 미국 대통령 당선 등 자산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즉시 보고서를 만들었으며, 이미 투자가 끝난 자산도 약정된 조건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지 추적 관리하는 등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이 대표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교직원공제회의 자산운용 역량은 이미 이전 수상을 통해서도 인정받은 바 있다. 투자 결정 시 ‘사업 제안 검토, 실무협의회, 투자심의위원회, 임원회의’ 등 최소 4단계를 거치는 시스템을 갖추고, 특히 실무협의회는 국내 최초로 실무자 전원이 1인 1표를 행사하는 방식을 도입해 직급에 관계없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를 진행하기 위한 ‘중장기 재정 추계’ 용역을 바탕으로 월등한 자산운용 역량을 갖춘 연기금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회책임경영 본격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사회책임경영(CSR)을 본격화한다. 이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사회책임투자 추진 로드맵을 마련한다. 아울러 벤처기업 및 청년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입찰 및 구매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개선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교직원공제회는 지난 9월 13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자산운용정책서(IPS) 및 관련 규정을 개정, 스튜어드십 코드 및 사회책임투자 도입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공제회는 우선 의결권 행사 안건에 대한 의사결정기구인 ‘의결권행사협의회’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내외 상장주식에 대해 보다 투명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향후 내부자원 및 조직체계, 관련 정책 등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

갈 계획이다. 또 사회책임투자를 위한 책임투자 조항을 신설, 재무적 요소와 더불어 비재무적 요소도 고려한다. 2019년부터는 모든 투자 건에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의 기준도 의사결정에 함께 적용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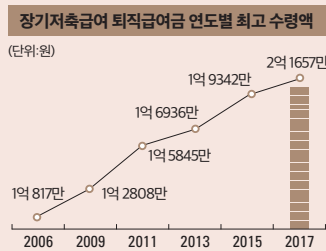
교직원공제회는 새 정부의 동반·혁신성장 및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창출 정책에 부응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벤처투자 확대 및 청년 창업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올해 6월말 기준 벤처기업 투자액 약 700억원을 확대, 하반기 벤처캐피탈 운용사 선정을 통해 1,000억원 규모의 추가 출자를 계획하고 있다. 또 정부부처 및 지자체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도심 내 스타트업 밀집지역의 오피스 시설 임차 지원, 교직원공제회 지방화관 내 임대 지원 및 공유 오피스(Share Office)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한편, 교직원공제회는 사회공헌 전담조직인 ‘참나눔 봉사단’을 지난 2009년 발족해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특히 각 시도별 해당 지역 소재 중·고등학교 및 대학생이 참여하는 멘토링 활동을 통해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The-K에다함상조와 연계한 소손가정 장례서비스 무료 지원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8월 말 퇴직회원에 급여금 2,906억원 지급

8월 말에 정년·명예 등으로 퇴직한 교직원공제회원 3,337명에게 총 2,906억여원의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이 지급됐다. 이번 퇴직급여금 수령자 중 최고액을 수령한 회원은 2억1,657만여원의 퇴직급여금을 받는다. 지난 1978년 4월 장기저축급여를 가입한 뒤 39년 5개월 동안 9,234만원의 원금을 납입하고, 원금의 약 135%인 1억 2,423만여원을 이자로 지급받는 것이다. 이 같은 고액 수령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06년 최초로 1억원 이상 수령자가 나오는데 이어 지난해에는 2억원 이상 수령자도 2명이나 탄생했다. 이는 오랫동안 가입할수록 유리한 장기저축급여의 특성 때문이다. 장기저축급여는 연배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납입기간이 길수록 원금과



이자도 크게 늘어난다. 또 이율 자체도 현재 3.6%(25년 가입기준)로 시중 은행보다 훨씬 높는데, 이는 적금금리로 환산 시 5.75%(세전, 1년 만기)에 해당하는 금리다.

한국교육개발원과 MOU 체결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지난 14일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김재춘)과 '공동발전과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유·초·중·고·대학 등 국내 교육기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기관으로, 교직원과 관련한 다양한 통계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국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시행 시 양 기관이 협력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각 기관이 보유한 각종 자료와 시설 등을 제공해 연구 및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예정이다.

The-K은빛동행 '건강+행복' 토크콘서트 개최



퇴직회원 600여명을 초청한 '은빛동행 건강+행복 토크콘서트'가 지난 8월 말 인천, 대전, 울산에서 개최됐다. 은빛동행은 교직원공제회 특별회원만을 위한 생활문화서비스로, 은퇴 후 즐거운 인생을 위한 다양한 강좌, 여행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이번 토크콘서트의 주제는 '100세 시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법'이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비타민' 등 TV 프로그램 출연으로 유명한 전형주 박사와 '타고난 성격으로 승부하라' 등의 저자인 소통전문가 윤태익 박사가 각각 '100세를 위한 밥상 회춘법과 건강운동', '성격 유형별 부부 소통법'을 주제로 유익하고 재미있는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 후에는 국방국악문화진흥회의 전통음악공연이 이어져 참석한 회원들이 흥겨운 우리 가락을 감상하기도 했다.

대학병원 직원 대상 야식 이벤트

지난 8월 전국 대학병원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올빼미 만찬 프로젝트'가 화제다. '올빼미 만찬 프로젝트'는 야간근무가 많은 대학병원 직원에게 간식을 증정하는 이벤트다. 함께 야식을 먹고 싶은 동료와 인증샷을 찍어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교직원공제회가 직접 피자, 치킨, 보쌈 등 간식을 배달하는 행사로, 6월 서울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했을 당시 큰 인기에 힘입어 전국으로 확대해 다시 개최했다. 고된 업무에 지친 동료와 잠시나마 즐거운 간식 타임을 갖고픈 수많은 직원들의 사연이 접수돼 추첨을 통해 전국 49개 대학병원 총 98개 팀에 든든한 야식이 배달됐다.





맛과 멋으로 가득한 The-K호텔의 가을



The-K호텔서울은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가든 페스티벌'을 10월 13일~14일, 양일간 야외 분수광장에서 진행한다. 13일 '소리새', 14일 '4월과 5월' 등이 출연하는 7080 포크송 라이브 공연을 감상하면서 특급호텔 주방장이 직접 요리하는 그릴요리와 모듬 해산물, 구이 등 총 40여 종의 다양한 메뉴를 즐길 수 있다. 생맥주도 무제한 제공한다. 운영시간은 오후 6시 30분부터 9시 50분까지며 공제회원은 5만5,000원(정상이 6만6,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 문의 02-526-9630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은 '취계 취계(Enjoy hygge)' 패키지를 11월까지 선보인다. 만 60세 이상 공제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객실 1박, 2인 조식, 스포츠센터 이용권, 조각케이크 커피로 구성됐다. 고급 여행노트도 증정한다. 가격은 17만원이며 1일 10객실만 한정 판매한다.

☎ 문의 064-729-8100

The-K호텔경주는 단풍철을 맞아 11월까지 '단풍 패키지'를 선보인다. 객실 1박, 조식 2인 구성에 11만5,000~13만5,000원이며, 전면부 이용은 만원, 준특실로 업그레이드는 2만원 추가된다. 또한 패키지 출시와 함께 한식당 무궁화는 추어탕, 더덕구이정식, 해물대갈비찜 등의 계절 메뉴를 새롭게 내놨고, 커피숍 아이리스는 와인 특가 판매 행사로 프랑스·이탈리아·칠레 등의 와인을 1만3,000원 대부터 판매한다.

☎ 문의 054-745-8100

The-K설악산가족호텔은 선착순으로 초·중·고교 대상 수학여행 예약을 접수 받고 있다. 요금은 1인 2박 6식 기준으로 5만원이며, 교육단과 레크리에이션 행사는 별도 요금이 부과된다. The-K설악산가족호텔이 위치한 강원도 속초의 설악산국립공원 일대는 산바위·비룡폭포·금강굴을 비롯해 45년 만에 개방된 토왕성폭포 등으로 수려한 자연풍광을 자랑한다. 이밖에도 속초해수욕장, 대포항, 낙산사 등 인근 즐길거리가 풍부하다.

☎ 문의 033-639-8100

소피아그린·예다함, '올해의 브랜드 대상' 수상



The-K소피아그린과 The-K예다함상조는 지난 9월 7일 열린 '2017 올해의 브랜드 대상'에서 소비자가 직접 뽑은 올해 최고의 골프장·상조서비스 브랜드로 선정됐다.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가 주최하는 '올해의 브랜드 대상'은 매년 온라인·모바일 투표와 1:1전화조사를 통해 한 해를 빛낸 최고의 브랜드를 선정하고 있다. 소피아그린C.C는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에 있는 대중제 골프장으로, 최근 코스별로 여주의 문화유적과 역사적 인물들을 소개하는 스토리텔링사업을 시작하는 등 코스 품질 및 서비스 향상에 힘쓰고 있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예다함은 미사용 품목비(수의·도우미·버스·횡대)를 100% 환불해주는페이백시스템, 부당행위보호시스템, 품질보증시스템 등 차별화된 서비스로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아 올해 고객감동브랜드지수, 브랜드 고객충성도, 프리미엄브랜드지수, 한국소비자웰빙지수에서 1위로 선정된 데 이어 다섯 번째 수상을 이뤘다.

The-K손해보험, 어린이UCC페스티벌 개최

The-K손해보험은 한국초등교장협의회와 함께 '제2회 The-K 어린이UCC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행사는 '내가 꿈꾸는 세상', '나의 꿈' 등 '꿈'을 주제로 한 5분 이내 동영상 촬영·제작해 10월 22일까지 유튜브에 올리고 참가신청서를 이메일(ucc@educar.co.kr)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대상, 최우수상 등 총 224개팀에 시상하며 수상자는 10월 말 The-K손해보험 홈페이지(www.educar.co.kr)를 통해 발표 예정이다. 자세한 대회요강 및 유의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 문의 02-6670-8805



10월 즉석 당첨 이벤트

이벤트 기간 10월 1일~25일

QR코드로 바로 당첨을 확인하는 <The-K 매거진>만의 이벤트!
총 300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100매

문화 상품권
1만원권(모바일)



200매

스타벅스
아메리카노(Tall)
기프트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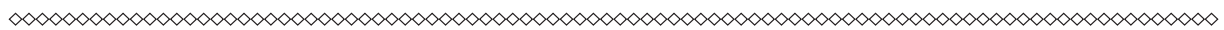
QR코드를 스캔하여 지금 바로 당첨 확인하세요!

참여
방법

모든 독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상단의 QR코드를 찍거나 www.thekmagazine.co.kr에 접속, '10월 즉석 당첨 이벤트'를 클릭합니다
→ 마음에 드는 상품 정보를 확인합니다 → 성별과 연령을 체크합니다
→ 당첨 여부를 확인합니다 → 당첨된 분에 한해 인적 사항을 기입합니다
(미가입시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프트콘은 11월 중순 발송 예정)

The-K INFORMATION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모든 교직원들이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교직의 보람과 생활의 풍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법(법률 제2296호)으로 1971년 설립된 정부보장의 교직원 복지기관**으로 회원수 76만명, 자산 31조원, 전국 17개 시도지부와 8개 출자회사(The-K호텔앤리조트, The-K제주호텔, The-K손해보험, The-K저축은행, The-K소피아그린, The-K서드에이지, The-K예다함상조, The-K교직원나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이 되면 다양한 복지 제도 및 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재직 중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하면 일반회원이, 퇴직 후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또는 퇴직생활급여 가입하면 특별회원이 됩니다. 일반회원 가입 자격은 ▲국·공립 각급학교, 교육연수기관, 교육행정기관 및 연구기관의 공무원 ▲사립 각급학교의 교원 및 사무직원 ▲대학병원의 임원 및 직원 등이며, 특별회원 가입 자격은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한 회원으로서 ▲정년·명예·임기만으로 퇴직한 교직원 ▲만50세 이상으로 퇴직한 교직원 ▲상병으로 퇴직한 교직원 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원 콜센터로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회원콜센터
☎ 1577-3400

홈페이지

저축 교육가족의 풍요로운 생활을 위한 고수익 저축제도

장기저축급여
교육가족의 노후 자금 마련 위한 국내 최장기 저축상품
이율 : 연복리 3.6%, 한도 : 3만원~60만원까지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여유로운 노후 위한 고이율 연금형 상품
이율 : 연2.8% 연복리, 한도 :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이내

목돈급여
현직 회원 위한 고수익 저축상품
이율 : 연2.2%, 종류 : 부가금형, 예탁형, 적립형

퇴직생활급여
안정적 노후를 위한 고수익 저축상품
종류(이율) : 부가금형(연2.2%), 확정연금형(연2.8%), 적립형(연2.2%)

대여 교육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간편하고 신속한 대여제도

일반대여 (이율:연 3.6%)
단독대여 : 장기저축급여 한도 내
보증대여 : 장기저축급여 한도 초과시
※ 신용등급에 따라 최저 2,000만원에서 최고 7,000만원 가능

The-K복지누리대여(이율:연2.99%)
미소누리 최초대여 : 대여 처음 이용시 최고 3,000만원
행복누리 결혼대여 : 결혼 전·후 6개월 이내 최고 3,000만원
희망누리 출산대여 : 출산·입양 후 3년 이내 최고 1,000만원

무이자대여(1년 또는 2년동안 원금 분할 상환)
보건의료자금 : 폐결핵 진단 또는 질병·상해로 1주일 이상 입원치료시 최고 500만원
재해복구자금 : 주택 재해로 물질적 피해시 최고 1,000만원
※ 저축·대여 이율은 변동금리입니다.

Media 매거진, 뉴스레터, SNS ... 열린공간, 열린소통

The-K News Letter
한 달에 2회 최신 정보를 전달합니다.
수신방법 : 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변경에서 이메일 수신동의

- 네이버블로그 '교육가족의 다락방(多樂房)'
- 페이스북 @withKTCU
- 인스타그램 @withktcu

보험

비용은 축소하고 보장은 확대한
교육가족 맞춤형 보험제도

보장기간	0세	20세	40세	60세	80세	100세	종신
종합 보험	종합공제 ¹⁶¹⁰						
	더블업종합공제 ¹⁶¹⁰						
건강·질병 보험	두번보장암공제 ¹⁶¹²						
	교직원라이프건강공제 ^{1707(갱신형)}						
자녀 보험	자녀공제 ¹⁶¹²						
	명품자녀공제 ¹⁶¹⁰						
시니어 보험	시니어공제 ¹⁶¹²						
	시니어암공제 ^{1610(갱신형)}						
	교직원라이프간편가입공제 ^{1707(갱신형)}						
재해보험	재해공제 ¹⁶¹²						

보험콜센터
☎ 1577-3993

홈페이지



한국교직원공제회 보험 '교직원라이프'는 특별법으로 설립된 교직원복지기관의 제도로서 최고의 안전성과 공신력을 보장합니다. 대부분 갱신형이 아닌 확정형 상품으로 가입시점 부담금이 그대로 유지돼 가입자에게 유리하며, 국내 최초의 교직원 전용 위험률 운영 및 낮은 사업비 책정 등으로 민영사 대비 저렴한 부담금을 자랑합니다. 교직원과 그 가족만이 가입 가능한 특권입니다.

종합공제(1610)
교직원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종합보험

더블업종합공제(1610)
은퇴 이후 2배로 보장받는 종합보험

두번보장암공제(1612)
두 번째 암까지 똑똑하게 보장받는 암보험

교직원라이프건강공제(1707)-갱신형
100세까지 빈틈없는 설계로 실속있는 건강보험

자녀공제(1612)
월 1만원으로 자녀를 지키는 어린이보험

명품자녀공제(1610)
자녀의 건강과 교육을 한 번에 해결하는 어린이보험

시니어공제(1612)
제2의 인생, 시니어라이프를 위한 장기요양보험

시니어암공제(1610)-갱신형
고령층(고혈압·당뇨환자 포함) 위한 암보험

교직원라이프간편가입공제(1707)-갱신형
유병자, 고령자를 위한 간편가입보험



행복서비스

교육가족의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고품격 문화복지행사

문화·예술 : 문화심터 樂(뮤지컬·콘서트 초청), 한여름밤의 클래식 산책, 매직콘서트, 행복나눔콘서트, 한국교직원미술대전, 찾아가는 행복나들이, 파크콘서트

도서 : 북&Joy(도서증정, 저자강연회)

스포츠허리 : 스포츠&Joy(스포츠킴 관람 초청)

영화 : 씨네&Joy(영화예매권 증정)

취미·여가 : 컬처&Joy, 자연&Joy, 은빛동행(퇴직회원 위한 행사)



복지혜택

회원의 생애주기별 지급하는
다양한 부조와 기념품

신규회원 가입축하기념품 : 최초 장기저축급여 가입시 '기내용 캐리어' 증정

재가입 축하기념품 : 탈퇴 후 재가입시 '스팀다리미' 지급

결혼기념품 : 결혼시 '진공청소기, 핸드블랜더, 침구청소기' 중 택일

출산축하금 : 자녀 출산 시 한 명당 10만원 지급(셋째 이상 30만원 지급)

고구좌회원축하금 : 장기저축급여 누적 구좌수 상위 1% 회원에게 20만원 지급

특별회원 가입축하기념품 : 퇴직생활급여 가입 또는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약정시 '안마기' 지급

상병급여금 : 원상회복 불능의 상병 퇴직시 최고 500만원 지급

유족급여금 : 재직 중 사망시 일반사망 100만원 지급

예약 및 상담

숙박시설

교직원공제회 출자호텔(회원할인)
The-K호텔서울 ☎02-571-8100
The-K호텔경주 ☎054-745-8100
The-K지리산가족호텔 ☎061-783-8100
The-K설악산가족호텔 ☎033-639-8100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 ☎064-729-8100

대명·한화리조트(법인회원권 이용)

대명리조트 전국 12개소

한화리조트 전국 12개소

※ 예약 : ☎교직원나라(teachiworld.com)

문의 : ☎1577-1382

레저·생활

소피아그린 CC(골프장) ☎031-887-8100

The-K서드에이지(실버타운)

☎055-530-8100

The-K손해보험 ☎1566-3000

The-K저축은행 ☎02-569-5600

The-K에다함상조 ☎1566-6644

티처월드(교직원 온라인 복지사이트)

☎teachiworld.com ☎1577-1382

S2B(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

☎s2b.kr ☎1577-3309

B2B(공공기관 전자조달시스템)

☎s2b.teachiworld.com ☎1566-5626

무료 세무상담(세무사)

서울 송영주 ☎02-3473-3401

인천 유명석 ☎032-864-9922

대전 주우성 ☎042-253-6901

광주 김영빈 ☎062-371-9611

대구 안중동 ☎053-654-8433

부산 강연경 ☎051-611-1125

무료 법률상담(변호사)

서울 이규철 ☎02-3016-5335

유수왕 ☎02-2051-8881

김병직 ☎02-592-7456

부산 이재호 ☎051-506-7381

대구 박경환 ☎053-751-6637

인천 박준범 ☎032-866-5660

광주 이기연 ☎062-226-6755

대전 곽노준 ☎042-369-6900

울산 이상구 ☎052-272-6000

경기 이영직 ☎031-386-0100

강원 유지한 ☎033-255-5601

충북 윤경식 ☎043-292-8008

전북 김대호 ☎063-275-0006

경남 김상균 ☎055-266-4747

제주 나인수 ☎064-726-6605

회원 예식장

전국 7개 교직원공제회관 예식장

부산(부산역) ☎051-464-6767

대구(범어역) ☎053-742-5400

광주(농성동) ☎062-352-1331

대전(탄방동) ☎042-488-1111

경기(수원시청역) ☎031-224-2030

강원(춘천터미널) ☎033-257-2921

전북(전주 서신동) ☎063-253-9790



제주, 사파이어 빛 바다 위의 호텔
A Floating Paradise on a Sapphire Sea

